

석탄일 맞이 연등행사
17일 불상 앞 점등식

정각원(원장=이법산·선학)은 '부처님 오신날 전 동국인 한 등 달기'를 전개한다.

'모두가 성불하는 지혜의 등, 민족이 하나되는 통일의 등, 동국이 약진하는 정진의 등'을 주제로 진행되는 연등 행사 참가신청은 오늘(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정각원 사무실에서 접수한다. 설치된 연등은 오는 17일 불상 앞에서 점등식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17일에는 정각원에서 고승 초청 법회가 열린다. 이장장 오복원 큰스님이 설법하는 이번 법회는 오후 5시에 시작하며 교직원, 학생, 일반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동병무 상담실 운영
내일(10일)부터 상륙원 앞

사무처(처장=황영수) 총무팀은 내일(10일) 이동 병무 상담실을 연다.

서울지방병무청 직원이 나와 본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상담은 상륙원 식당 앞에서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군 입영 등 병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문을 받는다.

총무팀의 한 관계자는 "평소에 궁금했던 군 문제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대, 열사 분향소 설치
매주 1명씩 추모 예정

총대의원회(의장=유승우·아시아 지역4)는 이번 주부터 학생회관 입구에 열사 분향소를 설치한다.

'동유럽정신 이어나가기' 사업의 하나인 열사 분향소 설치에 이번 주 노회두 열사를 시작으로 매주 1명씩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열사들을 추모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유승우 총대의원장은 "민주화를 위해 청춘을 바친 열사들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총 양회창·정재수 당선
2096명 중 52.3% 투표

지난 2일부터 3일간 실시된 야간 강과 총학생회 선거에서 단독 후보인 양회창(반도체3)·정재수(경영4)가 당선됐다.

'이유있는 자신감, 미래에 그 이름에 내일을 건다'라는 기치로 출마한 양회창·정재수조는 전체 재적인원 2096명 중 1097명이 참여해 52.3%의 투표율을 보인 이번 선거에서 양회창·정재수 조는 투표인원 1097명 중 1038명의 찬성으로(찬성률 94.6%) 야간강과 총학생회를 건설하게 됐다.

학생 참여속 등록금 협의돼야

총학, 학생관심 유도·학교와 협의체구성 노력

지난 7일 99%로 재학생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학교당국과 총학생회 간의 등록금 인상 재조정은 더 이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총학생회는 지난해 12월부터 등록금 책정에 대한 논의를 학교측에 요구했지만, 학교측은 예·결산의 미확정 등으로 협의를 미뤄오다 결국 지난 2월초에 첫 등록금 협의자리를 갖게 됐다.

그러나 등록금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일었고, 학교측은 등록금 인상율을 재조정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후 총학생회는 학원자주화투쟁 선포식을 진행하면서 학교측에 등록금 인상을 재조정과 함께 △모집 단위광역화 재검토 위원회 설치 △도서관 자치 위원회 설치 △공강문제 해결 소위원회 등 학교와 학생간의 협의체를 통한 학교운영을 제시했지만 이에 대해 학교측은 "의견

들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총학생회는 예년과 달리 학생들에게 등록금 협의를 알리는 활동이 활발하지 못했다. 등록금 인상반대운동이 학생들의 호응 없이 진행된 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총학생회와 학교당국 간의 등록금 협의를 시작한 시점이 늦었고, 남부연기운동도 활발하지 못했다 때문이다. 타학교의 경우 대부분 올해 초부터 학교본부에 등록금 책정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왔지만, 본교의 경우 총학생회와 학교본부의 1차 협의자리가 열린 것은 고지서 발부 하루 전인 지난 2월 13일이었다.

또한 각 가정에 남부연기를 호소하는 편지도 단과대별로 발송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대부분 등록금 고지서보다 늦게 도착했으며, 심지

어는 편지를 발송조차 하지 않은 단과대도 있었다. 타대학의 높은 인상률에 비해 학교측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시한 5%선을 지킨 것과 지난해에 비해 소폭 인상한 것도 학생들의 등록금 문제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올해 총학생회의 등록금 인상 반대운동은 예년부터 지적돼온 논의창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시하는 동시에 정기적인 논의기구로 가져가려 했다.

그러나 학생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등록금협의는 유명무실할 뿐이다. 총학생회가 학생의 대표기구로서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때 진정한 학원자주화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부
flower@dongguk.edu



생협 특식 할인 판매
내일(10일) 상륙원·동국관
생활협동조합은 내일(10일) 총학생회(회장=김흥민·지교4) 출범식을 기념해 상륙원 학생식당과 동국관 식당에서 특식을 할인판매 한다. 상륙원 학생식당에서 체육료납 4300식, 동국관 식당에서 불고기 백반 2700식을 준비해 각각 1000원에 제공할 예정이다.

졸준위 앨범·CD 설명회
오늘(9일) 학림관 소강당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문영수·토목4, 이하 졸준위)는 오늘(9일) 오후 5시 학림관 소강당에서 졸업앨범과 CD 업체의 공개설명회를 연다.

실사작업을 통해 선정된 5개의 앨범업체와 3개의 CD업체가 참여하는 이번 설명회에서 졸준위는 공개 질문 등을 거친 후 상임위원들의 투표와 거리품평회 설문 결과를 종합해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졸준위는 오는 14일 모의 토익시험을 실시한다. 재학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접수는 오늘(9일)부터 13일까지 중앙도서관 앞과 학생회관 졸업준위실에서 해오름식을 개최한다.

감옥농성 기획한 김태광 학부위원장장을 만나

"0.75평에서 만나는 국보법 피해"

학생들 인식 변화 성과 ... 국보법 강연회 계획



김태광 (사범대 국교4)

'최장살, 수의, 수인번호, 사식...' 평소애 흔히 볼 수 없는 장면들이 지난달 26일부터 감옥농성이 진행된 2주 동안 불상 앞에서 연출됐다.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김태광·국교4, 이하 학복위)가 기획한 감옥농성은 '국가보안법 철폐, 한총련 합법화, 학생대표자 수배 반대'를 기치로 학생회 간부, 직원노조, 석립회 스님 등 5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지난 4일 끝났다.

이번 감옥농성을 기획하고 직접 참여한 김태광 학부위원장을 만나보았다.

- 감옥농성을 기획하게 된 동기는.

= 국가보안법 피해자의 90%가 한총련 대의원을 포함한 학생들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총련이 이적단체인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자기가 소속한 학생회의 대표가 한총련 대의원이고, 수배자이기 때문에 학생회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생각해보면 국가보안법에 의한 피해가 결코 남의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싶었다.

- 학생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 처음 보면 신기해한다. 그러나 선전물을 통해 주위의 학생 대표자들이 단지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이유로 좁은 감옥 속에 갇혀 지내야 한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갖는 것 같다.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중인 정치수배자를 위

한 서명운동'에 600여명의 학생들이 스스로 동참했다는 것은 학생들의 인식에 변화를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 감옥을 직접 체험한 참가자들의 반응은.

= 올해부터 한총련 대의원으로 수배자가 된 단과대 학생회장들에게 감옥농성은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자신이 대표자로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데 국가보안법이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느낀 것 같다.

-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과 관련한 앞으로의 계획은.

=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강연회나 토론회를 통해 학생들이 '국가보안법'이 왜 부당한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도영 기자
circus@dongguk.edu

회전문대

앨범 스파이

O...지난 6일 중도 앞에서 주위의 눈치를 살펴며 황급히 달려가는 한 학생이 있었다는데.

이유인즉, 졸준위에서 앨범과 CD 업체 선정을 위한 거리품평회를 실시하던 중 한 학생이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 한 업체에 무더기로 스티커를 붙이고 달아났기 때문이라고.

이는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실시한 거리품평회가 졸지에 달아난 학생으로 인해 공정성을 잃은 것이니.

이에 본 회전문대자 알, "스티커를 마구 붙이고 도망간 그는 업체의...스토커?!"

세월이 가도

O...요즘 도서관에서는 시대에 역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데.

군사정권 때 금서로 지정된 북한·사회주의 관련서적 가운데 이미 시중에 출판되었음에도 도서관에서는 여전히 특수자료실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시대에 맞게 책을 재분류하는 것을 미뤄온 도서관의 안일한 행정을 보여주는 것이니.

이에 본 회전문대자 알, "시대가 바뀌어도 금서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친구

O...복사 한번 하려다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난다는데.

학내 곳곳에 설치된 복사기가 고장나 있는 경우가 많아 복사를 하려는 학생들을 불편하게 한다고. 학생들이 돈을 주고 산 복사카드도 고장난 복사기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

이에 평평한 복사기를 찾아다니던 한 학생 알, "복사기 법칙·고장난 복사기는 자기를 복사해 친구를 만든다"

통행은 없다

O...동악을 지나는 학생들은 때때로 과속 알레르기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데.

알아보니, 좁은 학교에서 한껏 속도를 내며 동악을 누비는 오토바이들 때문에 학생들은 불안에 떠다고. 학생들이 밟히고 통행하기 위해서는 학내에 교통 경찰이라도 불러야 할 형편이니.

이에 본 회전문대자 알, "통행은 없다. 비트(?)만 있을 뿐..."

4.19기념 제32회 동국인 등산대회

4.19혁명 41주년을 맞이하여 선열들의 충절을 되새기고, 동국인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양하기 위한 '4.19기념 동국인 등산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이번 등산대회는 4.19정신의 계승은 물론 개교 95주년을 기념하는 뜻 깊은 행사이니 모든 동국인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행 사 명 : 4.19기념 동국인 등산대회
2. 일 시 : 2001. 4. 13(금), 08:30~17:00
3. 장 소 : 북한산(집결장소 : 4.19 국립묘지)

* 등산경로 : 4.19기념탑(개회식)→백련사매포소→대동문→보국문→중성문→대시문→북한산성매포소→북한산성 매포소앞 주차장(시상식 및 폐회식)

* 등산로에 표식 리본을 설치하였으니 산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행코스 곳곳에 안내 및 의료지원팀(하얀모자 착용)이 있으니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4. 교통편
 - 가. 시내버스 : 6번, 6-1번, 16-1번, 8번, 8-1번, 23번, 28번, 333번 (4.19 국립묘지 입구에서 하차, 도보10분) 27번, 127번(우회함) : 4.19 국립묘지 앞에서 하차(도보 3분)
 - 나. 지 하 철 : 4호선 수유전철역(마을버스 및 학교(셔틀)버스 이용)
 - 다. 셔틀버스 3대 운행 : 4호선 수유전철역 5번출구 ↔ 4.19 국립묘지 입구(운행시간 : 07:40 ~ 10:00)
5. 참가대상 : 교·직원, 학생, 동문, 법인등 모든 동국가족
6. 행사내용 : 4.19 기념 추모식, 등산대회 및 시상식
7. 팀 구성
 - 가. 4인 1조팀 : 학(부)과, 동아리, 동문회, 대학원, 교직원 등 자유롭게 구성
 - 나. 학과 단체팀 : 5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교수 2인 이상 참가
 - 다. 동아리 단체팀 : 30명 이상으로 구성, 지도교수 참가시 가산점
 - 라. 행정부서 단체팀 : 행정부서 단위로 구성(기획인사처, 대외협력처, 교무처, 연구처, 사무처, 정보관리실, 중앙도서관)

8. 시 상
 - 가. 4인 1조팀 : 총12팀 시상
 - 최우수상 1팀, 금상 1팀, 은상 2팀, 동상 3팀, 자연보호상 5팀
 - 나. 학과단체팀 : 금상 1팀(W1,000,000), 은상 2팀(각 W500,000), 동상 3팀(각 W300,000)
 - 다. 동아리단체팀 : 2팀 각 W300,000
 - 라. 교직원단체팀 : 금상 1팀(W500,000), 은상 2팀(각 W300,000)
 - 마. 장기자랑상 : 10팀(4인1팀 기준) - 시상식 장기자랑에 참여한 모든 동국인
 - 바. 행운상 : 참가 학생 중 행운권 추첨을 통하여 하계방학 기간내 개교 95주년 기념 21C 지도자 연수의 일환으로 금강산 연수(00명)를 보내드립니다.
 - 사. 단과대학 특별상 : 단과대학 소속 교수 전원이 참여하는 단과대학에는 특별 상금 W1,000,000을 지급합니다.

9. 접수기간 : 2001. 3. 26(월) ~ 4. 11(수) 09:00 ~ 17:00.

10. 접 수 처
 - 가. 학과단체팀 : 각 단과대학 교학과
 - 나. 4인 1조팀, 동아리단체팀 : 학생처 학생복지실(본관 3층)

11. 유의사항
 - 가. 접수기간내 접수한 팀에 한하여 시상 및 기념품을 지급합니다.
 - 나. 시상식(폐회식) 행사에 참가하지 않은 팀은 시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 학과단체팀 및 동아리단체팀은 반드시 명단을 제출하여야합니다. (접수양식은 각 단과대학 교학과나 학생복지실에서 배부)
 - 라. 학과단체팀은 행사당일 행렬의 선두와 후미에 세울 깃발 2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마. 우천시에도 대회는 진행됩니다.(우산 또는 우의는 개별 준비)
 - 바. 도시락은 각자 준비하셔야 합니다.(쓰레기 봉투도 미리 준비)
 - 사. 기타 등산대회에 대한 문의사항은 학생복지실(☎ 2260-3047~8)로 하시기 바랍니다.
 - 아. 행운상 추첨을 위한 행운권은 행사당일 출발전 대회본부에서 배부합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이 제공됩니다.

DMZ 내 스포츠클럽 설치에 따른 대처방안

남북 화해 · 협력 공간 건설에 철저한 준비 필요

남북체육교류는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확대 · 발전할 소지가 큰 분야이다. 정치적 · 이념적인 요소가 적어 북한측 호응가능성이 높고,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족통일체육 기반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의 하나로서 DMZ(비무장지대) 내 스포츠클럽 설치를 들 수 있다. 이같은 구상은 앞으로 경의선 철도 연결이 완공되고 DMZ가 남북화해 · 협력의 전초기지로 활용될 경우 그 실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법 · 제도적 차원에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DMZ 내 스포츠클럽 설치를 추진하고 현실화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법적 문제는 스포츠클럽 설치 과정에서 제기되는 법적 문제와 공원 완공 후 그 이용 내지 운영과정에서 제기되는 법적 문제로 구별된다.

전자는 다시 스포츠클럽의 설치장소가 DMZ라는 특수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과 남북관계에서 스포츠클럽의 설치에 갖는 사업의 성격(남북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력사업) 때문에 제기

되는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나누어진다.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할 사항은 DMZ가 현재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측 지역은 유엔군 사령관이, 그리고 북측 지역은 공산측 사령관이 관할하는 특수지역(국제법적 규율대상)인 관계로 이들이 쌍무적인 합의를 통해 스포츠클럽이 위치할 부지에 대해 정전협정에 기초한 현행 DMZ 법질서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것이다.

현행 DMZ 법질서 일부 배제

이를 위해서는 2000년 11월 17일 유엔사와 북한군이 양자간에 체결된 '비무장지대 일부 구역의 개방에 관한 합의서'와 유사한 합의서를 새로이 채택하여, 양측이 남북 당국으로 하여금 직접 이 문제를 협의 · 해결하도록 동의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법적 테두리 내에서 남북한이 비무장 스포츠클럽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합의(공원설치의 추진주체, 공원설치의 원칙, 비용 분담 방법, 지뢰제거 등 군사적 문제 해결 등)를 채택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스포츠클럽의 효과적인 건설을 위해 경의선 철도 연결의 예에서 보듯이 DMZ의 남측

및 북측의 공사구역을 하나의 특별관리구역(공동관리구역)으로 설정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명기해야 한다.

스포츠공원의 설치를 위해서는 우리측 사업자(예컨대 국민체육진흥공단)가 '남북 교류협력법'상의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사업자와 현실적인 시공업자는 '자연환경 보전법'의 요구에 맞게 스포츠클럽 건설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환경적인 측면의 고려 사항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정부는 DMZ 내 스포츠클럽이 들어설 부지의 원소유자에 대해서 합리적인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의 제한에 따른 불만을 해소토록 해야 할 것이다.

스포츠공원 완공 후 해결과제

DMZ 내에 스포츠클럽이 완공된 후에는 이용 및 관리에 따른 문제들이 적지 않게 발생할 것이다.

남북한이 스포츠클럽을 공동으로 이용 · 관리할 기구의 구성 · 운영문제, 남남주권의 스포츠클럽 왕래에 따른 절차 간소화문



Jeong Seung-ho, Director of DMZ Education

제, 수익사업 추진 시 이익의 배분 및 과세문제, 스포츠클럽 내 질서 유지 및 범죄사건 처리와 민사상의 손해배상시 그 처리문제, 스포츠클럽 원내 편의점의 설치 및 통용화폐의 선정문제, 수질 · 대기오염과 쓰레기 · 폐기물의 처리 등 환경법상의 법적 문제들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다. 이러한 법적 문제들에 대한 공정한 원만한 해결책을 마련해 두어야 사후 이용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남북한의 노력에 따라 21세기의 DMZ는 긴장과 대결이 아니라 남북화해와 협력, 정치적 신뢰구축의 공간이 될 수 있다. 그러한 법적인 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 학계와 정부 관계자들이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머지 않은 장래에 실현될 DMZ 내 스포츠클럽의 건설이라는 체육분야의 새로운 역사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어려움을 없도록 해야 한다.

사설

백만 청년 학생 함께 가는 한총련

9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 의장 선거가 전담대와 부산대 총학생회장이 각각 입후보한 가운데 경선으로 치러졌다. 그 결과, 부산대 최승환 총학생회장이 당선, 유독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시선을 모았다. 이는 전담대와 한총련의 지난 15년 역사를 뒤돌아볼 때 임시의장은 자연스레 '의장'이 돼왔던 과정을 뒤엎게 된 이례적인 결과였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총련은 정권의 온갖 압력 속에서 쉽게 굴하지 않고 '자유 · 민주 · 통일'의 원칙을 지키며 몸소 실천하는 투쟁을 벌여왔다. 그러나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정책을 의논 · 결정하기보다는 중앙에서 결정된 사안을 아래로 일방 전달하는 비민주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성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또한 한총련은 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로 담아낼 그릇으로서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현재 이러한 문제의식들이 모여져 학생운동의 진정한 도약을 담보할 전망이 세워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선거 결과는 근대 학생운동의 가장 큰 화두인 '대중화'를 지향하면서 조직의 '단결'과 '혁신'에 대한 대의원들의 다양한 고민들이 집약적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여전히 많은 학생들에게 '한총련의 운동이 남의 일' 같고 지나치게 과격하며 체계가 비민주적인 것 같다'는 지적을 듣는다는 것은 한총련이 반드시 혁신해야 할 과제다. 이번 의장 선거를 계기로 모든 구성원들의 궁극적인 관심과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는 토론문화를 형성해 모든 국민과 학생에게 신뢰받는 한총련이 되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듭 '대중화'의 가치를 내걸고 끊임없이 혁신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며

지난 5일 프루야구 개막전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장애인 '애덤 킵'의 시구하는 모습이 TV를 통하여 전국에 방영되었다.

운동장을 뛰어다니는 수 있는 다리 대신 차디찬 티타늄제다리가 지탱해주고 있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소년의 얼굴에는 시구 내내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이 소년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살았다면 어떻게 해갈까 자랄 수 있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들었다. 또한 장애인들이 쉽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동시에 우리 경주캠프의 현실을 생각하게 되었다.

경주캠프 어느 곳에도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배려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수업을 받기 위해 강의실로 향하는 계단은 비장애이들에게조차 숨이 가쁠 정도로 많아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다른 학생들의 도움 없는 강의실에 들어갈 수도 없다. 뿐만 아니라 식당을 비롯해 구내 복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도 많은 계단을 거쳐야 한다. 그나마 한의학과와 의화관은 장애인을 위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이미 오래 전에 운행이 중단된 상태이다.

외국대학의 경우 장애인 학생을 위해 각 건물마다 화장실, 승강기, 경사로를 설치한다고 한다. 단 한 명의 장애인 학생을 위한 시설이라도 갖추겠다는 생각이다. 물론 외국은 모든 학교가 그렇진 않지만 학교 곳곳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이에 반해 본교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오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외국대학에서는 장애인의 날에 모든 학생들이 어우러져 축제처럼 즐거운 행사를 갖는다고 한다.

우리는 특별한 행사를 기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장애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이 빠른 시일 안에 캠퍼스에 설치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우리 모두 후천적 장애인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장애인과 함께 하는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위한 시설 마련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송석구, 편집인 김주환, 부주장 박승선, 편집국장 박상관, 편집장 김은선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하이텔 ID dgpress, 나무누리 ID 동대신문
구독문의 : (02)2260-3491 · 2, 동대신문 홈페이지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2)2260-3491 · 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658, 팩스 (054)770-2657

주한미군 독극물 방류 약식기소

엄격한 사법처리로 당당한 외교되어야

사대주의적 모습, 국민들에게 반미감정 확대

'국민들의 여론보다 미국 정부 눈치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난해 7월 북핵연합은 마스크를 쓴 사람이 독극물을 버리는 사진을 근거로 제시하며 주한미군이 독극물을 방류했다고 폭로했다.

계속되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따라 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지난달 23일 한강에 포클로데히드 등 독극물을 무단 방류(수질환경보전법 위반)한 혐의로 주한미군 용산기지 영안실 엘보트 맥팔랜드 부소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검찰의 이 같은 처분은 주한미군의 환경범죄에 대해 한국 검찰이 처음으로 수사권을 행사하고 관련자를 기소한 것이지만 사건처리가 1년 이상으로 지나치게 길어지는데 처음 불구속 기소방점을 뒤집은 것이어서 논란을 빚고 있다.

북핵연합 입삼진 사무처장은 "약식기소는 벌금만 부과하고 재판에 넘겨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면죄부"라며 "이는 국내 동일 범죄에 대한 처벌과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국민을 미군과 역차별한 것"이

라고 말했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검찰 스스로 한강에 독극물을 방류할 경우 경미한 처벌을 받는다는 전례를 남긴 것"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은 정식 기소 할 것 △약식기소 결정을 내린 담당 검사 및 책임자 사퇴 △SOFA 환경조항을 비롯해 불평등한 SOFA 재개정 등을 촉구했다.

SOFA 개정협상을 이유로 기소처분을 지연시켜 왔던 검찰은 정식 기소로 피의자가 집행유예를 받은 뒤 출국하게 된다며 처벌효과가 없으므로 차라리 벌금형으로 처벌의 실효성을 올리는 것이 낫다는 논리다.

하지만 지난해 미국측 요청에 따라 사법처리를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약식기소 발표가 있기 전 한 검찰 관계자는 "미국측이 지난 SOFA 개정협상에서 환경조항을 신설하는 대신 맥팔랜드에 대한 선처를 부탁해 왔다"고 했다.

검찰은 당초 여론과 환경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불구속기소 방침을 정했



으나 지난해말 SOFA 개정협상 타결이후 다시 약식기소 쪽으로 내부방향이 기울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이미 반민권, 반환경적 범죄의 전형으로서 국내외의 거센 지탄을 받아왔는데 정식 재판을 받게 되면 여론에 다시 오히려 유리해진다. 이를 꺼리는 미군측의 압력으로 결국 '여론'이나 '외교' 나를 놓고 고심하던 검찰이 외교마찰을 피하는 쪽으로 매달리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SOFA 개정협상 결과와 더불어 한국정부의 사대주의적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처사다.

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정식기소와 선언적 문구에 불과한 SOFA 환경조항을 비롯해 개정 SOFA의 전면 재개정 뿐이다. 약식기소로 처리한다면 검찰이 걱정하는 국민들의 반미감정은 오히려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엄격한 사법처리만이 한 · 미 양국이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수립해 나가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김윤미 기자 kiza41@dongguk.edu

입학성적 우수자 전공신청 안내

- 1. 신청 대상: 2001학년도 대학별 권역모집단위 입학자중 입학성적이 상위 10%이내에 해당하는 자
2. 일정: 가.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2001.4.10(목) ~ 4.12(목)
나. 결정 및 학장발표: 2001.4.26(목)에 대학별 공고 및 홈페이지 게시
3. 전공결정 기본원칙: 가. 원칙적으로 학생의 희망에 따라 모집단위내 개설전공중에서 배정한다.
4. 재한 사항: 가. 입학성적 우수자가 가점공을 배정받은 경우에도 1학년 과정(계열학기 포함) 이후 다음의 요건에 미달할 경우에는 해당전공에 우선배정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5. 전공신청 절차: 가. 대상학생은 학업지도교수님과 충분한 면담을 통하여 본인의 적성과 진로계획을 고려하여 배정희망 전공을 결정한다.
6. 기타사항: 가. 소정기간에 가점공 배정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우선배정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일반학생과 동일한 전공배정 기회(1학년 2학기말, 2학년 1학기말)를 부여한다.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 1. 접수기간 및 장소: 2001. 4. 3 ~ 4. 14, 학생복지실
가. 지원자는 출신대학에 원서를 접수하고 추후 원서접수처에서 접수증 수령
2. 응시수수료: 5,000원권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첨부
3. 시험표 교부: 2001년 5월 12(토) 14:00~14:50 (경기시업고등학교 시험관리본부)
4. 응시자격: 가. 학위(석·박사)과정
나. 학위(석·박사)과정
다. 다음 해당자는 응시자격이 없음 (학위과정, 전문요원과정 공통)
5. 지원자 제출서류: 가.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응시원서 1통(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각대학에 송부한 소정 양식)
나. 제1차시험 합격자는 2001. 5. 22 ~ 5. 29 사이에 다음 서류 각 1부씩을 구비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고사기록부에 직접 제출하여야 함.

통일은 우리의 몫

304인 통일민심 알아보기

평양에서 서울까지 길따라 피어나는 통일내음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통일에 대한 의식은 어느정도 바뀌었을까? 최근 다소 경색된 남북분위기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관심을 끈다. 이에 본사는 본교 학생 150명과 학교 주변 154명을 대상으로 '통일과 김위원장 답방에 대한 생각'을 알아봤다.

편집자

최근 남북 관계가 심상치 않다. 김정일 위원장 답방에 관한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5차 남북 장관급 회담이 북측의 일방적 통보로 회담 당일 취소됐다. 뿐만 아니라 세계선수권 대회에 출전해서 우승의 영광을 안았던 남북 탁구 단일팀 재현도 물거품이 되어 아쉬움을 남겼다. 이같은 일들이 남북관계에 악재로 작용해 상반기로 예정됐던 김 위원장 답방이 하반기로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지난해 6월 13일,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하자 수많은 환영 인파가 몰려나와 TV를 지켜보

던 남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과연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에 도착할 때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52%가 서울 시민도 평양 시민만큼 남북 정상의 만남을 열렬히 환영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흥미있는 부분은 7%의 응답자가 김 위원장 답방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답한 점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진행한 '김정일 위원장 답방 반대 서명운동'과 같이 김 위원장 답방에 부정적이던 보수 우익세력이 답방이 임박해질 때 반해할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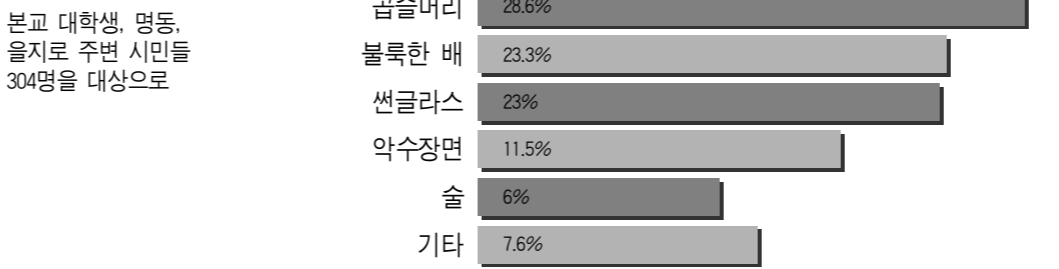
김 위원장 답방시 거리의 환영인과 중 한사람이 될 의사가 있는 지는 22%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환영하러 나가지 않겠다는 사람들은 '바쁘기 때문'을 중요한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통일이 싫다', '김정일에 대한 개인적 반감이 크다'는 응답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식부터 바꾸는 것이 시급함을 보여주었다. 공항에서 악수를 나눈 남북 정상이 차를 타고 시내를 누비는 동안 평양 시민이 꽃술을 들고 환영한 장면은 아직도 남한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의 답방 시에는 꽃술 대신 박수를 치거나 단일기를 흔드는 장면이 눈에 띄게 될 것 같다.

대체적으로 김 위원장 환영 때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많았고 32%는 단일기를 가지고 나가겠다는 의견이었다. 이는 지난해 활발하게 보급되기 시작한 단일기가 통일의 상징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을 나타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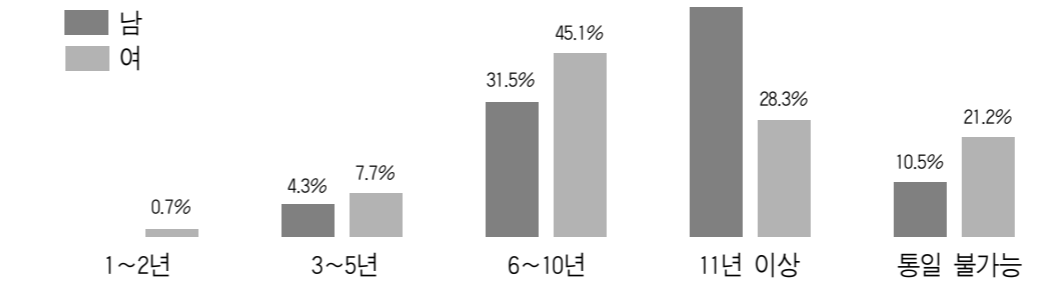
'김정일 위원장'을 생각하면 우선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일까?

김 위원장 특유의 곱슬머리나 불룩한 배 등 의

김위원장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통일이 얼마나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모에 대한 답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김 위원장 답방 후 통일이 얼마나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는 남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남성의 53.7%가 통일까지 최소 11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하는데 비해 여성은 6년에서 10년 사이에 통일이 이뤄질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한편 여성들은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대답도 남성의 2배인 2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일에 대한 시각이 남성보다 다양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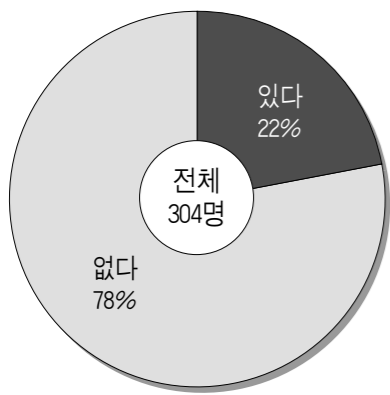
전체적인 조사 결과 사람들의 김 위원장에 대한 거부감은 평양회담 이후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스스로를 남북 통일의 주체로 생각하기보다 소극

적인 자세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통일을 이루려면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흘러야 할 것이라는 대답은 오랜 시간동안 분단된 채 살아온 남북이 완전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을 말해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은 지난해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 방문보다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일 위원장 답방에 전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사회부 society@dongguk.edu

김위원장 답방시 환영하러 나갈 의사



▶나가지 않는 이유

- 1위 바쁘기 때문에
- 2위 관심이 없어서
- 3위 김정일 위원장과 통일이 싫어서



본사 통일민심기행. 을지로 중부시장에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동약로

무협 세상



"어? 또 없네" 한참 동안 도서관 책장을 두리번거리던 한 학생. 하지만 기대를 저버린 채 원하는 책은 끝내 나타나지 않는다. "누가 다른 곳에 잘못 둔 것이겠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학생은 도서관책대로 향한다. 기대를 품은 채 검색을 해보지만 컴퓨터 화면에는 '3권 모두 대출 중'이란 내용뿐. "분명히 오늘 반납 예정이었는데 그 사이에 누가 또 빌려간 건가?" 아쉬운 듯 도서관을 나서는 학생. 그토록 애타게 찾던 책은 바로 '무예'라는 무협지였다. 무협지 전성시대다. 지난해 2학기 중앙도서관

도서 대출 순위에서 1위부터 10위까지를 모두 무협지가 차지하는 영광(?)을 누렸다. 대단한 경쟁력이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도서관 한 귀퉁이에 있는 무협지가 이토록 높은 순위인 걸 보면 말이다. 무협지의 흥수 속에서도 대출 순위에서 교양 서적들이 곳곳이 상위권을 차지하는 서울대 등 다른 대학들과 대조적이다. "우리학교 중앙도서관에는 정작 필요한 전공 서적이 없어" 학생들의 불만이다. 하지만 이런 말과는 달리 학생들은 무협지를 선호하는 역설적인 경우가 현실이다. 사람들은 흔히 대학이란 말을 들으면 '학문의

전당'을 떠올린다. 그리고 대학생들의 학식이 사회를 선도한다고 믿고 있다. 흔히들 '고정관념'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때가 많다. 그러나 때로는 대학에 대한 고정관념처럼 지성으로 가득한 대학생이 가장 대학생다운 모습일 수도 있다. 인문학의 위기라고 한다. 사회과학은 죽었다는 말도 나온다. 흥미 위주의 알파한 지식을 추구하는 대학생들이 문제의 중요한 원인제공자일 것이다. 학생들의 머릿속에서 실재없이 날아다니는 무협지 주인공들을 조금은 쉬게 해줘도 괜찮지 않을까? 우정현 기자 caesar2000@dongguk.edu

특성살린 통일맛이 준비 한창

100만 환영단 조직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은 지난달 23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울 방문 성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조직해 김 위원장의 서울방문 환영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 안에 김 위원장 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연합은 김 위원장 답방 준비를 최대과제로 삼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맞춰 지난달 30일은 한겨레 사회면 광고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울 방문 성사와 미국의 내정간섭, NMD·TMD반대 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 615인 선언'을 실었다.

전국연합의 김 위원장 답방 환영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는 위 선언운동을 통해 100만 환영단을 조직하는 것이다. 선언운동을 통해 김 위원장 서울방문을 환영하는 환영단을 모집하고 이와 함께 한민족을 모으는 '평화와 통일 염원 7천만 겨레 단일기 달기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단일기 운동은 현재 남북장관급 회담이 무산되고 분단체적이 반통일운동을 펼쳐나감에 따라 국민들의 식어 가는 통일 열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연합 강형구 부대변인은 "김 위원장 답방 100만 환영단 조직은 국민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 관련 홈페이지 제작과 지역 순회 통일 콘서트 등을 열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통일 준비 위한 범민련 합법화

지난해 평양에서 6·15 공동선언이 발표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약속되었다.

이에 각 재야통일운동 단체들은 김 위원장 답방이 공동선언이행 1단계 완료임을 주장하며 빠른 답방을 요구해왔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이하 범민련) 민경우 사무처장은 "지난 3월 6일에 있었던 한미정상 회담으로 미국이 한반도 긴장구조를 만들었다. 현재 이러한 문제 때문에 답방이 지연되는 것 같다"며 "올 4, 5월은 6·15선언의 이행을 위한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범민련은 6·15선언 이행을 위해 우선 미국의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NMD·TMD체제를 반대하는 시위를 전개할 것이다.

또한 지난 31일 통일연대의 민족대표토론회 실무회담을 통일부에서 불허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의 폭을 제한·불허에 대한 규탄' 운동도 벌일 예정이다.

통일부에서 통일연대의 민족대표토론회 실무회담을 불허한 것은 현재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범민련과 한총련이 소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부가 불허한 민족대표토론회는 제 정당, 사회단체를 포함한 민족구성원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통일에 대해 토론하기 위한 자리이다.

범민련의 통일운동에 이적단체 규정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면서 범민련은 올해 최대 과제로 범민련의 합법화를 내걸었다. 범민련은 이적규정 폐지를 위해서는 대중에게 알리는 일이 먼저라고 인식하고 범민련을 알리기 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통일 주체로

노동자와 통일.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을 준다. 노동운동과 통일운동은 별개로 여겨졌고 지금까지 통일운동에는 재야 운동단체의 역할이 더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노동자들이 조직적으로 참가한 지난해 8월 통일대추전과 12월 열린 남북 노동자 대표토론회는 노동자들이 서서히 통일의 주체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난 달 11일 금강산에서 국내 양대 노동단체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북한 최대 노동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과 실무회담을 개최했다. 실무회담에서 발표된 공동합의서 결과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남북 노동자들의 통일연대기구인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회의' 결성이다.

연대기구는 앞으로 상설기구로 운영되며 통신연락을 통해 남북 노동자들의 '항'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남북 노동단체들은 금강산에서 5·1절 공동기념행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남과 북이 노동계의 가장 큰 행사인 5·1절 기념행사를 함께 개최하는 것은 분단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남북 관계가 개선된 데는 스포츠의 공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남북 노동단체 역시 지난해에 이어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를 개최해 스포츠를 통한 남북 화해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김영재 통일국장은 "6·15 공동선언 발표 1주년 기념으로 양대 노총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해 통일사업에 대해 좀 더 포괄적인 논의를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는 노동자들이 통일시대의 주체로 나설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김현정·우정현 기자 society@dongguk.edu

벼랑 끝에 선 인문학

다양성과 특수성 담아 새로운 르네상스로

지난 세기 말부터 일렁이기 시작한 대학과 인문학의 위기라는 담론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위기의 대상이 무엇이고, 그 실체에 좀더 사려 깊게 접근하려는 노력은 있었는지 궁금하다.

현상적으로 볼 때, 지금 한국의 대학과 인문학의 위기는 아주 분명하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진정한 대학과 인문학은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각 대학의 인문학을 담당하는 교수들은 학생들이 인문학 수업을 듣지 않는다고 한탄을 하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80-90%는 하루 종일 토플이나 토익 참고서를 펴놓고 생활영어 회화공부에만 열중한다. 그리고 학부 교육의 연장이자 다음 세대 인문학을 이끌어갈 대학원은 매 학기마다 미달사태가 일어나고, 각 대학들은 자기 대학의 교수가 미국 유명대학 출신의 박사라고 앞다투어 자랑한다. 대학과 인문학의 위기를 떠나 '한국의 대학과 인문학은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공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여과없이 받아들인 서구화

그러나 이와 또 다른 현상이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는 존재한다. 전국적으로 대학은 우후죽순 식으로 늘어나고 있고, 대학교육의 절반은 국내 최저 생계비도 되지 않는 강사료를 받으며 학문에 대한 열정과 애정으로 허기진 삶을 유지하는 강사들이 담당하고 있다.

또 전국의 고등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하여 가족의 한달 생활비와 맞먹는 과외비를 지출하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조기유학이나 이민을 고민하고 있는 이들도 있다. 그리고 대학을 벗어난 인문학 교육과 인문학 연구는 아주 성행하고 있다. 일례로 김용옥 교수의 '노자와 21세기', 그리고 KBS에서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논어강의'는 전국적으로 동양의 고전에 대한 열정을 가져왔고, 이진경씨와 고미숙씨가 주축이 되어 활동하고 있는 수유/공간 '너머'의 동송동 연구실은 20-30명의 젊은 학자들이 동양과 서양, 근대와 탈근대(혹은 전근대), 그리고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을 가로질러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연구와 토론의 열기가 연일 뜨겁다.

해괴한 현상이 아닌가. 대학과 인문학의 위기를 부추길 수 있는 수많은 현상들과 그와 상반되는, 대학이나 인문학의 번성을 일리는 또 다른 수많은 현상들이 공존하고 있는 우리 사회가 이상하지 않은가. 그리고 이러한 혼란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위기의 담론만이 횡행하고 있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지난 세기 말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현상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의 대학이나 인문학의 감옥 속에서 뛰어나와 더 커다란 안목에서 우리의 대학과 인문학을 조감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유럽의 대학들은 말할 것도 없이 주변에 있는 일본과 중국의

대학들의 형성과정도 우리와 다르다. 19세기 말 서구적 근대의 충격과 더불어 일본과 중국은 전통적인 그들의 교육체제를 자체적으로 근대화하여 서구의 근대적 교육의 틀과 병합하여 그들 나름의 근대적 대학과 인문학을 형성하였다. 이것은 일본과 중국의 대학이 형성하고 있는 인문학이 그들의 전통적 인문학과 근대(서구)의 인문학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한국사회에서 대학과 인문학이라고 명명하는 것들은 일제로부터 해방과 더불어 어부지리로 얻어진 것들이다. 일제강점의 기간 동안 전통적인 우리의 교육체제는 초·중등 교육이 일차적으로 정리되었고, 일제로부터 해방과 함께 아무런 교육적 재원 없이 이루어진 대학의 형성이 우리의 대학이다. 오늘날 우리가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대학과 인문학은 이렇게 형성된 것이다.

대학과 인문학의 위기를 역사를 들어 이야기하는 것은 그동안 수없이 반복되었던 우리 대학과 인문학의 식민지 교육 등을 운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학과 인문학의 시작은 아주 철저한 전통과의 단절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영 어로 된 것만이 그리고 영어로 말할 수 있는 것만이 지식의 척도이고 우리말이나 한자로 이루어진 지식은 모두 버리도록 강요받았고, 또한 서양적인 것만이 발전의 모델이 된 것은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우리의 대학과 인문학이 지니고 있는 전통과의 단절은 그 산물로 아주 철저한 서구, 특히 미국의 대학이나 그들의 인문학과 결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반세기의 역사를 지닌 우리의 대학이나 인문학이 르네상스나 그 이후의 근대와 더불어 형성된 서구의 대학이나 인문학과 결합하려는 시도가 온전할 리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일 동안 우리 대학이나 인문학의 성장은 놀라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적이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발전했다고 해도 거짓은 아닐 것이다.

새롭게 싹트는 희망의 징후

문제는 우리가 서구, 특히 미국의 대학과 인문학을 답아가려고 이를 막고 달려가고 있는 도중에 그들의 대학과 그들의 인문학이 위기라고 이곳 저곳에서 웅성웅성 대거 시작했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지칭하고 있는 대학과 인문학이 온전하게 형성되기 이전이라 귀기울여 듣지 않았지만, 당시 유럽이나 미국에서 들렸던 웅성거림은 오늘날에도

아직 여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대한 것이었으리라 짐작된다.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위기가 서양에서 들리기 시작한 것은 영국, 프랑스, 그리고 독일에선 이미 60년대부터 시작하여 80년대에 절정에 달했고, 미국은 70년대에 시작하여 8·90년대에 그 절정에 달했다. 미국의 7·80년대에 백인 남성들이 빠져나간 인문학 강의실을 채운 사람들은 여성과 유색 인종이었고, 90년대에 들어와서 문학이나 철학을 전공으로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가 이들이 아닌가.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낸 페미니즘이나 탈식민주의, 그리고 생태주의가 미국이나 서구의 대학과 인문학의 또 다른 활로를 열어주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이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대학이나 인문학은 19세기 중반부터 이루어져 1960년대까지 이어졌던 서구 근대의 대학이나 인문학은 아니지 않을까.

따라서 우리가 위기라고 말하는 대학과 인문학은 서구의 대학과 서구 근대 인문학의 위기라고 이야기해야 옳을 것이다. 인간과 사회, 그리고 세계와 삶을 다르게 보고, 생각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지적 욕망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한 것이 오늘날이다.

따라서 위기의 징후가 서구, 특히 미국을 가장 많이 닮아있는 대학과 대학의 인문학 속에서 발견되고, 이것과 다른 희망의 징후가 길거리나 산 속에 있는 고고한 전통적인 선비나 댄

디들 속에서나 발견되는 것은 다행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서구의 대학이나 서구 근대 인문학이 아닌 우리의 대학과 인문학을 새롭게 만들어야만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아 이러니컬하게도 서구의 대학과 인문학의 위기를 극복하는 기미를 보이는 것은 유럽이 지니고 있는 서구·백인의 순종적인 대학이나 인문학이 아니라 미국의 잡종적인 대학이나 잡종적인 인문학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대학이나 인문학에도 적용될 수 있다. 즉, 우리가 아무리 서구의 대학이나 서구 근대 인문학을 답아가려고 노력해도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틈새, 다시 말해서 수천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적인 삶의 양식과 사유방식이 우리의 대학과 인문학을 새롭게 형성하는 힘으로 솟아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의 나라 속에 있는 대학과 그 존재의 의미 할 수 있는 인문학이 제대로 서기 위해선 대학들의 자체적인 재생산구조의 획득, 그리고 정치·경제·문화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와의 소통구조를 획득해야만 한

다. 대학이 지니고 있는 자체적인 재생산구조와 사회와의 소통구조가 없다면, 그러한 대학들이나 그 대학들이 속해 있는 나라가 진정한 의미로 존재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대학과 인문학 분야에서 이러한 자체적인 재생산구조와 사회와의 소통구조를 형성하고 매개하는 곳이 바로 대학원이다. 그동안 무시되었던 대학원 교육과 그 처우가 강화되지 않는 한 우리의 대학과 인문학의 위기는 치우치지 않을 것이다. 서구의 대학과 서구의 인문

학으로 성장한 우리의 대학들 속에서 완전하게 서구화될 수 없는 틈새, 그리고 전세계를 서구의 척도도 전 근대를 뛰어넘는 새로운 틈새로 작용하는 대학의 바깥, 이 두 개의 틈새를 연결시킬 수 있는 잠재력은 대학원과 대학원 연구생들이 지니고 있다.

다양성, 위기극복의 열쇠

그리고 이러한 틈새는 오늘날을 규정하고 있는 근대나 탈근대의 논의와 연결되어 있다. 근대의 척도는 서구화와 미국화이다. 그러나 탈근대는 서구화나 미국화가 아니라 다양성 속에서 서로 관계맺기이다.

대학이나 인문학의 다양성이란 미국은 미국의 대학과 인문학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나름의 대학과 인문학으로,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대학과 인문학으로 존재하여 상호 공존하는 인류의 삶과 미래에 대한 사유와 연구를 교류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인류가 한번도 획득하지 못한 다양성 속에서 서로 관계맺기가 우리의 대학과 인문학에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대학과 인문학의 위기가 서구의 대학과 서구 근대 인문학의 위기라고 자각하는 것은 새롭게 만들어야 할 우리 대학과 우리 인문학의 희망이자 전지구적인 인류의 희망이기도 하다.

장 시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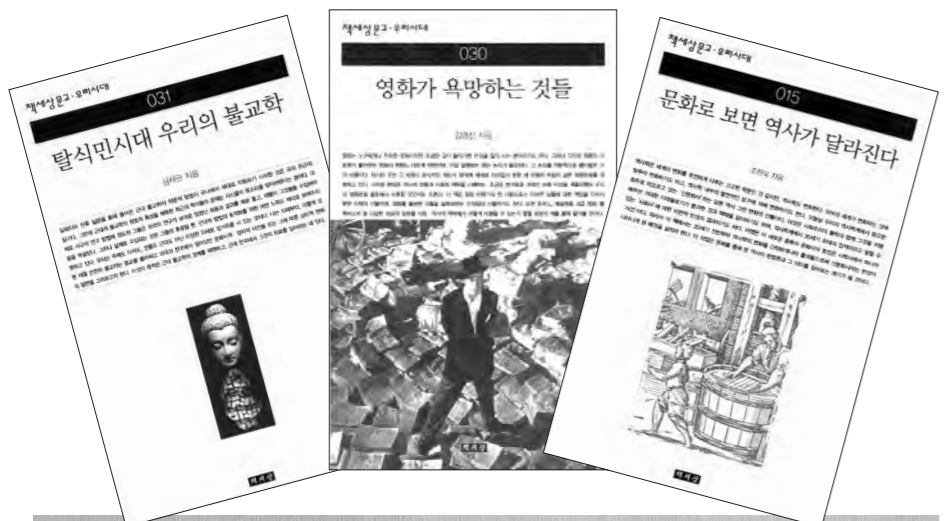
문과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인문학 서적 전문 출판사 책세상 편집부 차장을 만나

“출판시장의 상업주의·지식사회의 권위주의에 도전”

우리 시대 현안 논하는 주제 선정 ... 현실 속 자리잡는 인문학 되길



김 미 진
책세상 편집부 차장

94년부터 인문학 서적을 위주로 출판해 온 도서출판 책세상이 '전기 시리즈'와 '밀리터리 시리즈'에 이어 지난해 '우리시대'라는 문고판 인문학 시리즈를 내놓

아 화제가 되고 있다. 흔히 인문학 서적이라고 하면 때울리게 되는 두꺼운 겹표지의 단행본을 문고판으로 바꾼 '우리시대'는 내용 또한 쉽고 재미있게 구성해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도서출판 책세상의 김미진 편집부 차장을 만나 '우리시대'와 관련, 우리 시대 인문학에 대해 들어보았다.

- '우리시대'를 기획한 취지는,
= 가볍고 감각적인 주제를 다룬 책만이 독자들의 호응을 얻다 보니 출판계가 지나친 상업주의로 치닫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지식인들은 현실상황과는 무관하게 자기들의 지적 편견과 오만으로 가득차 지나친 권위주의와 폐쇄성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양극단의 상황에서 중간지점을 찾는 것이 이번 기획의 취지이다. '우리시대'를 통해 논쟁거리가 될만한

주제들을 독자가 함께 생각하고 토론해 보자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바이다.

- 인문학이 외면당하는 현실에서 굳이 인문학 서적을 위주로 출간하는 까닭은,
= 출판사는 대중적 수요가 없으면 출판할 수 없기 때문에 인문학의 위기를 막아보자는 거창한 명분을 가지고 시작한 것은 아니다.
다만 앞서 말한대로 순수창작문학이 지나친 상업성에 치우치다보니 더 이상 현실인식의 매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그래서 이를 인문학으로 해결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 주제선정의 기준과 필자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가.
= 주제는 시리즈의 이름처럼 우리 시대 현안을 중심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토론이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필자의 입장이 글 속에 반영되게 하고 있다. 물론 쟁점이라고 해서 단기적이거나 유행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전후 10년 정도는 유효한 주제를 선정한다.
필자 역시 자기 견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짧은 소장학과들을 발굴하려 노력하고 있다.

- 독자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 최근 독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책의 줄거리나 서평만을 읽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번거롭더라도 책을 다 읽어보라고 말하고 싶다.
자기에게 필요한 책이라면 약은 '죄'를 쓰지 말고 '이둔하게' 읽어야 한다. 굳이 인문학서가 아니더라도 책을 가까이 하는 마음을 가지길 바란다.

손상민 기자
neo9292@dongguk.edu

탈출구는 없는가?

현 사회문제 모델로 해답찾는 노력 중요

위기의 인문학 활로 모색 ... 삶에 대한 고찰 가능



홍 윤 기
문과대 철학과 교수

연하게 들려옵니다. 전세계적인 인문학의 위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요.

= 인문학의 위기는 전세계적으로 낮은 현상이 아니에요. 197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한 이와 같은 말은 우리나라의 경우 학문의 위기를 말하며 이는 곧 '인문학의 정체성위기'를 의미합니다. 왜 갈수록 인문학의 위기가 대두되는가.

첫째로 2차 대전 이후 산업이 부흥하면서 인문학이 사회적 연관성을 잃어갔기 때문입니다. '연관성'이란 두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되는데 실용적 목적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와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인문학자로서 비판할 수 있는가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두가지가 모두 부족하지요. 두 번째는 인문학의 지적영역에서 학문적인 낙후성 문제입니다. 우리가 현대 인문학을 한글로 다룬 지는 이제 겨우 반세기 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문적 성과는 회의적인 수준이고 학자가 어떤 말을 해도 그 발언이 힘을 발휘하는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 수업시간중 인문학 교육의 위기를 느꼈던 적이 있나요.

= 수업을 하다보면 수업내용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군요.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에 와서 초차 수준적으로 받아들이려고만 합니다. 독일에서는 어려서부터 부모가 스스로 책을 읽는 습관을 길러줍니다. 자연

적으로 창조적인 생각이 많이 나오겠지요. 인문학을 공부하기 위해선 책을 열심히 읽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갈수록 사회는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시스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집니다. 특히 세계화시대에 인문학이 설자리가 더욱 위태로운 것이 아닌지요.

= '세계화'는 두가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우선시되는 신자유주의 또는 지역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 두가지를 말합니다. 지역사이의 경계가 사라질 때 인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세계화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게 잘 안되는 것 같더군요. 세계화는 인문학적인 고도의 수양을 요구합니다. 세계화를 통해 들어오는 것만으로는 우리자신의 독자성을 세울 수가 없을 겁니다.

- 인문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있으신지요.

= 극복대안을 굳이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는 인문학자가 사람과 관련된 일에는 어디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학문적 자세를 말합니다. 서양이나 전통 중심에 머무르지 말고 현 한국사회를 모델로 우리 문제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생계보장 문제입니다. 인문학의 활로를 모색하려는 세대가 연구하고 싶어도 미래가 열려있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지요.

- 과학기술이나 산업을 인문학과도 연관시킬 수 있을까요.

= 과학 기술을 알고 인문학도 알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과학이나 기술이 인간에 어떻게 응용되는가를 안다면 얘깃거리가 됩니다. 과학뿐만 아니라 인간의 소비와 관련된 산업도 마찬가지겠지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영화산업은 6·70년대까지 아시아에서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독재 정권 시절

검열이 시작되자 영화인들은 자기부터 검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었지요. 영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나리오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인문학이 요구하는 삶에 대한 고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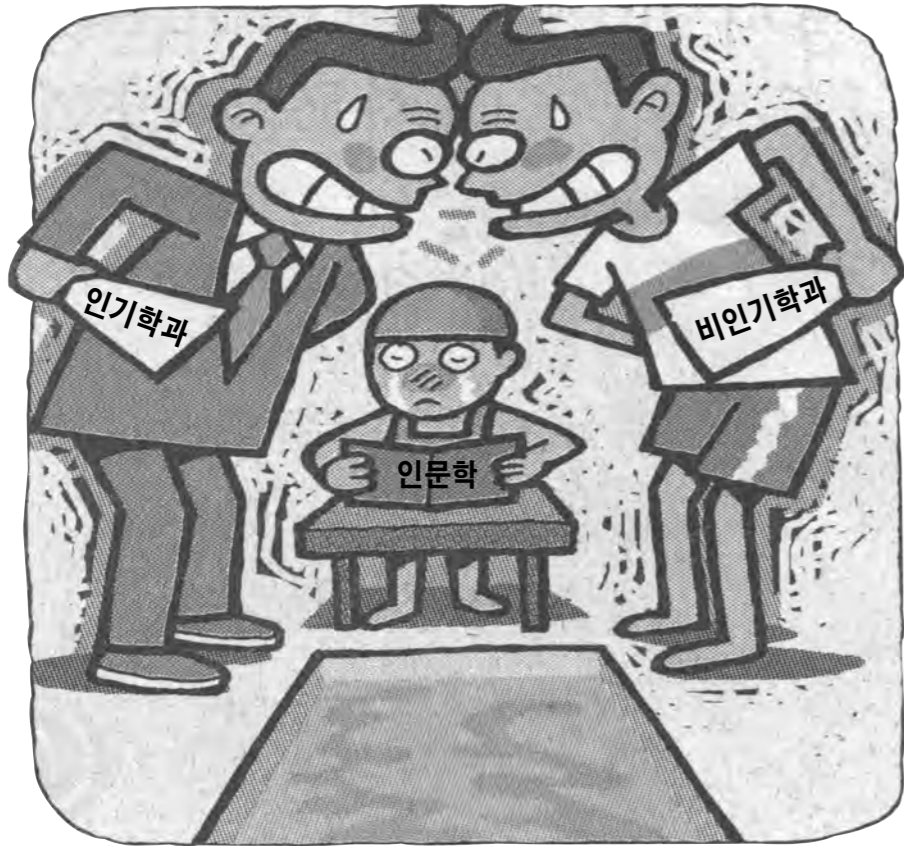
김은선 기자
ppuzic@dongguk.edu



자기 모델로 / 권

사람에 대해 책임있게 이야기 하려다보니 너무나도 학문적인 곳에 갇혀있었던 인문학. 그러한 인문학 전반이 한 사회의 행동하는 영혼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했다는 본교 홍윤기(철학)교수를 어렵게 만나 '인문학의 위기'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았다.

- 언제부터인가 '인문학의 위기'라는 말이 공공



변화하는 학생들, 변함없는 인문학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 취업관련 학과 인기편중

사회가 급변하고 취업문제가 주관심사로 떠오르면서, 과거 모든 학문의 기초로 여겨지던 인문학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학생들이 졸업후 취업보장이 되지 않는 철학이나 사학 등 인문학 관련 학과에 대한 선호도는 자연계나 이공계열보다는 현저히 낮은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학이 취업을 위한 수단이라는 이야기가 심심치않게 나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학생들의 인식마저 '대학은 취업준비터'로 굳어질까 염려스럽다.

인문학의 위기는 학생들의 전공결정이나 인문학 관련 강좌 등을 통해 보다 심각하게 드러난다. 해마다 전공선택시 인기학과와 비인기학과와 선호도가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며, 인문학 관련학과가 비

인기학과'로 치부되고 있다.

이는 2001학년도 00학년 전공선택 결과에서도 드러나듯이 윤리문화학과나 철학과 등의 배정인원이 대부분 한 자리수에

적어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편중현상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인문학 내에서 위기 극복방안을 찾아 질적인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인문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 소양으로 학생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

그쳤다.

이와 관련해 신재호 교무처장은 "전공선택에 있어서 편중 현상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현상"이라며 "인문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사회에 맞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문과대 박병걸(사3) 학생은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그럼 인문학 위기의 원인은 무엇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에서 원인을 찾는다. 효율적인 경쟁만을 추구하다 보니 경영이나 정보통신과 같은 학문에 비해 인문학이 침체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재광(철4) 문과대 학생회장은 "인문학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으로 심화된 것"이라며 "학회나 소모임 활동으로 광역화의 단점들을 해결하겠다"고 말한다.

반면, 구승희(윤리문화학과) 교수는 "신자유주의나 광역화 등의 문제는 부차적 요인일 뿐 인문학자들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 위기의 주요 원인"이라고 말한다. 또한 "인문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 소양으로 학생들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그 필요성을 역설한다.

과학과 물질문명이 발전하면서 우리의 생활도 윤택해졌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과학이 만들어낸 문제나 물질 문명의 한계성도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과학의 이점이 있지만 이에 반하는 문제들도 간과할 수는 없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더라도 결국 인간의 본질이나 정체성 등에 대한 문제는 인문학에 의해 해결될 것"이라는 구승희 교수의 말처럼 인문학이 학문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게 될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임태규 기자
snail11@dongguk.edu

소나기

조선일보=민족지(?)

- 국사교과서 생각 -



△조선일보는 그냥 신문이다.
△조선일보는 판지일보다.
△오랜 역사와 바른말을 하는 신문.
△일본의 역사왜곡만 나쁜 것이 아니다.
조선의 역사왜곡은 더 심각하다.
△조선일보는 민족정통신문이다.
△조선일보는 친일매국 신문임이 분명하다.
△현시점에서 한겨레의 의도가 불분명하다.
△조선일보를 배척하는 자들은 뻔한 사람들이다.
△국사교과서, 일본역사 교과서처럼 되지 말자.
△조선일보는 친일지.
△진보가 있다면 보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다 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조선일보 진짜 짤 없어요.
△보수가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편협한 보수 -진보에 반하는 그런 보수는 필요 없다.
여당의 견제만 필요하냐!
△어디서 민족지란 생각이 나왔는지 모르겠다. 현대의 다분한 이권을 쟁기는 마스크에 불과한 것 같다.
△민족을 망친 이상한 신문.
△신문의 제1의 의무는 공정성! 공정성 없는 주관적 개입만 있는 신문은 신문이 아니라 신문잡이다.
△조선=민족지
구독를 못지않은 크면 대통령 하나?
△통일의 방해꾼 조선일보.
△민족지가 아닌 스스로 이런 말 쟁기는 민족지(?)
△조선일보 =민적지
△과연 '신문 그 이상의 신문' 이로운...
△김영삼 대통령 만들기 운동본부 조선일보.
△하하-문화인류학 적으로 민족지란 인류학자가 한 민족을 관찰해 작성한 그 민족의 보고서- 그럼 조선일보는 어디의 민족지이지?
일본 아님 한국(?)어디???
△할말은 해야겠다. 너희가 무슨 말을 하나?
△이런 신문이 있으면... 저런 신문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도 조선일보의 문화면은 괜찮던데...
△우리민족을 저버린 민족지(?)
△국사교과서 배운 후손들은 조선일보를 어떻게 생각할까?
△시대에 역행하는 그대들은 ... 조선일보

오늘의 열린글터

박기정 (인문대 사체4)

우승 신화 주역 사격부 주장

인생의 표적으로 사격과 함께 할 터

사격부 주장을 맡고 있는 박기정 (사체4)군은 "단체 우승이 저에게는 더 큰 영광인데 저만 인터뷰하게 돼 미안하네요" 라고 축스러워 하면서도 팀을 먼저 생각하는 등 집합을 보였다. 그는 지난달 28일부터 열린 '제 17회 대한 사격 연맹 회장기 전국 사격대회'에서 소구경 복사부부 개인 3위를 차지했다. 또 소구경 3차 세 단체 우승(5연패), 소구경 복사 단체 준우승을 이끄는 데 한 몫을 했다. 작년에는 전국 사격대회에서 3번이나 우승을 하기도 했다. 박군은 중학교 1학년 때 운동에 매력을 느껴 사격부를 선택했지만 초반에는 기록이 향상되지 않아 큰 좌절을 겪었다고.



또한 총기를 사용하는 운동인 만큼 안전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연습 도중 총을 놓쳐 얼굴에 상처를 입은 적도 있었다. 그러나 0.1점 차이로도 1, 2등이 가려지는 예민한 경기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잡념들을 떨쳐 버리게 해주는 사격의 매력속에 빠져버렸다고 한다. "가로·세로 10cm인 표적지에 과녁을 겨누고 있으면 그것이 나 자신의 목표라는 생각이 들어 한발 한발 신중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격경기는 보통 제 자리에서 1시간 45분 동안 같은 동작을 60번 반복하기 때문에 체력단련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무게 중심을 잡기 위해 3kg이 넘는 두꺼운 사격복을 입어야 하는데 연습이 끝나면

정윤미 기자 copy@mail.dongguk.ac.kr

열린글터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pc 통신 ID 하이텔 dgpress 니우누리 : 동대신문 천리인 : dgupress

사상의 자유 보장돼야

국가보안법은 수많은 인권 침해, 정치적 탄압의 사례를 남긴 우리나라 대표적 악법으로 손꼽히고 있는 법이다. 그리고 안티조선은 조선일보라는 특정 언론사의 '신문 이상의 신문'이라는 권력소유와 남용의 행태를 비판하고, 나아가 제대로 된 신문의 역할을 수행하라는 조선일보 제 목 찾아주기 운동이다. 국가보안법과 조선일보, 언뜻 놓고 보면 전혀 다르게 보이는 이 둘 사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내 생각과 다른 '어떠한 생각'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릇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 둘은 '사상의 자유'를 묵살하고 있다. 영국의 저명한 대학교수가 쓴 책이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별 탈 없이 읽히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적을 이롭게 하는 표현물이 되어 번역 출판한 출판사 사장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는가 하면, 대학교수의 논문을 자기 입맛에 맞게 필요한 부분만 따로 내어 '사상검증'이란 것을 하기도 한다. 도대체 이 세상 누구에게 다른 사람의 사상을 검증할 권리가 있단 말인가.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어서 사람의 '행위'가 아닌 '사상'의 자유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수배자로 생활하고 있는 학생대표자들의 감옥농성과 '조선일보=민족지'라는 소나기 주제를 보면서 착잡함을 느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 환경을 위해서 아직도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싸우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배근호 (생지대 식물자원4)

불쾌한 원호관 낙서

모든 것이 변하는 계절이다. 그리고 그 변화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 내가 거의 대부분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경주캠퍼스 원호관 중정에도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가지각색의 문자들이 어지러이 흩어져 있다. 바로 등록금 투쟁과 학교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내용들이다. 어떤 학생들은 이것을 보고 당연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이런 일들을 단순히 등록금 인하와 학생들을 위한 투쟁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원호관, 더구나 많은 학생들의 휴식처이자 만남의 장소로 이용되는 중정에 어떠한 틀도 없이 낙서처럼 쓰여있는 글귀들을 보면 등록금 연기납부에 동참하겠다는 생각보다 환경을 어지럽힌다는 느낌에 거부감부터 든다. 학교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이의를

우은숙 (인문대 국문3)

현실을 채찍하는 삶

지난 겨울은 유난히 눈도 많이 내리고 추위서인지 길게만 느껴졌었다. 하지만 겨울도 어느새 지나가 버리고 봄이 우리 곁에 다가와 있다. 따스한 햇살, 시원한 바람, 푸른 하늘, 싱그러운 풀 냄새. 나는 봄의 이러한 느낌들을 좋아한다. 집에 오는 길에 꽃집에 들러 채송화 꽃씨를 샀다. 설명서를 봐도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다. 하지만 열심히 흙을 퍼다 넓은 화분에 담고 씨앗을 모래에 섞어 고루 뿌렸다. 순간 담장 밑에 색색의 채송화가 피어 있던 어린 시절 시골집이 생각났고 꿈 땅고 모든 것이 행복했던 그 시절의 나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별은 착한 사람의 마음에만 깃든다고 한다. 그래서 그 별에는 어린 왕자가 살고, 바오밥나무가 자라고 잠미 한 송이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균형된 입장 실어야

지난 호 해설면 논란에 실린 '기여입학제 확대 도입'에 대한 글을 매우 관심 있게 보았다. 예전에는 막연히 기여입학제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만 생각했는데 필자가 다양한 측면에서 일목요연하게 문제점들을 제시해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특수계층 학벌 상속의 부작용과 경제능력이 최우선시 되는 사회 분위기 조성 등의 이유는 매우 공감 되는 말이기도 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기여입학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매우 축소시켜 글을 나열함으로써 기여입학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만을 갖게 했다는 것이다. 이 기사와 더불어 찬성하는 입장의 글을 실었다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글 제목에서도 논란이라고 했는데, 반대만 있는 논란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선미 (이과대 수3)



(제1315호 4월 2일자)

전통문화 색다른 접근

문화면에 실린 김치와 관련된 전통에 대한 기사는 우리들로 하여금 오랜만에 전통 문화에 대해 생각하며 관심을 가지게끔 해준 내용이었다. 물론 기사의 내용이 그리 생소한 것은 아니었지만 대하 신문에서 다루겠다는 것에서 신선함이 엿보였던 것 같다. 특히 김치박물관에 대한 내용은 더 이상 김치가 먹기 위해 식단에 있는 것이 아닌 부가가치 창출의 열쇠가 됨을 일깨워 준 기사였다. 그리고 앞으로는 인근 지역에서 열리는 음식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실어 동대신문이 독자들과 지역을 연계하는 역할도 충분히 해 주었으면 한다. 민부영 (상경대 경성2)

가 된다. 그 어린 시절의 나는 충분히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어느새 나이를 먹고 세상과 타협하며 순수함을 잃어가고 있는 나를 본다. 또한 나를 위해 이기적인 사람이 될 줄도 알고, 살기 위해 나를 굶힐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도 어렵듯이 느낀다. 아직은 학교라는 보호막이 있고 젊음이란 한 밀천이 있으니가 두려워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점점 작아지는 나를 발견하면서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의 차이를 인정하게 된다. 이렇게 어른이 되어 가는가 보다. 10년 후에 나는 씨뿌리지 않고 수확만 바라고 있는 건 아닐지 다시금 나를 채찍질한다. 난 아직 같아야 할 빈 들이 많음을 알고, 높이 그리고 멀리 날려면 그만큼 강한 날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안다. 이제 나처럼 미숙한 나무를 들고 빈 들에 심어보자.

김지연 (사과대 복한4)

베꾸는 미덕과 만족함

인도의 수상 인디라 간디가 막 출발하려던 기차에 올라탔을 때의 일이다. 순간 그의 신발 한 짝이 벗겨져 플랫폼 바닥에 떨어졌다. 기차가 이미 움직이

고 있었기 때문에 간디는 그 신발을 주울 수가 없었다. 그러자 그는 나머지 신발 한 짝을 벗어 열린 그 옆에 떨어뜨렸다. 사람들은 그런 행동에 놀라 이유를 물었고 간디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바닥에 떨어진 신발 한 짝을 주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머지 한 짝마저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삶의 여유와 넉넉한 마음이란 이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기가 막히게 화창한 4월의 봄날, 가까운 동네 뒷산도 좋고 먼 곳이라도 좋으니 한뼉쯤은 여행을 떠나보고자 하고 싶다. 우리가 여행에서 무엇을 얻으려 한다면 그것은 열린 마음, 열린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여유를 갖기 위함일 것이다. 만약 신발이 떨어졌다고 해서 달리는 기차에 매달려 신발을 주우려 한다면 어떻게? 어차피 주울 수도 없을 텐데 신발에 대한 미련이나 아쉬움으로 좋은 기분을 망치는 것보다 간디처럼 나머지 한 짝도 벗어 던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작은 기쁨을 얻어보자. 생각을 바꾸면 우리 주변은 근사해질 것이다. 설선욱 (관광대 호텔경영3)



동약광장

목격길

축하합니다

△4월 10일 행정학과 2학년 남민정양 22번째 생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널 사랑하는 이가
△엄 생일 엄청나게 축하한다. 엄한 태도 보이지 말고 항상 명쾌하게~
-42
△연주야~ 생일(4월13일 금) 추가추카
△츄카 사리 생일추카해!!~
△동그라미 32기 암살허가식 통과를 축하합니다.
-NAM
△해선아~ 생일 축하해~ 짱가 만세!!
-준환오빠
△승준선배 생일축하.
-매버널
△동규오빠, 생일 축하해요.
-동별
△건축 96 대환아~ 기사 시험 합격 축하해
△화학 공학과 98 박규영 생일 추가추카!!
-form 김지숙 and 윤
△손짓 사랑회 18기 이상민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王추카추카~
△은자야, 경남아 머리 자른 거 추가한당. 니들 유치원생으로 보여. 크크^^
△해진씨 우리 제수씨가 된 걸 추가해열
△상자야 생일 축하해! 호들바두 생일 축하해!
-지교00
△인배♡윤정 300일 축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상최대의 엘티 수고하셨습니다.
-디딤돌
△지교 해오를 마당 연극하느라 새내기들 수고했어요.
-00선배
△동불 집행부 수고하십니다. 더욱더 힘내시길...
△이·다·산 요새 넘 잘하시네요. 수고하십니다요~
△문과대 01학번 애기들! 동기엘티 다녀오느라 수고했어요~
-쌈장

열심히합니다

△새로 KUSA가 된 39기 새내기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구요. KUSA 38기 임원단 사랑합니다.
-유리, 나리, 승현
△경찰행정학과 35대 학회가 출범했습니다. 35기 형님들 화이팅!
-37기 때사이
△정재, 병기, 원재, 선재, 범구, 정현, 정근아 열심히 하자!
-41th 재원
△연극 1등 체육교육과 fighting! 농구 8강 진출! 우승이더!
-광 패밀리 일동
△명수가~ 옥아... 내가 없어도 도서관을 집삼아 다니렴!
-라니
△오빠! 멋진 교생선생님으로 남길바래! 힘들어도 열심히!
-꿈치
△전기 공학 95 최정진 선배 시험공부 열심히 하시구요, 경욱 오빠 이젠 당구장이랑 보트리스 그만해요.

△"김주연" 자랑스러운 이름 떨치며 당당하게 살자구요~
-동명이인
△누구나 C.F.C가 될 수 있었다면 나는 C.F.C를 선택하지 않았다.
-생지대 Y.J
△영수형~ 졸준위 위위장 하기 힘들지? 똑바로 잘해요~~
△우리 공부를 위해 머리 잘랐어요~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할게요.
-C&M

그리고...

△저 4월 16일 입대합니다. 필승!
-경형 99 때사이
△나 13일 군대 간다. 제대하면 더 좋은 학교가 되어있길 바란다.
-pr
△명길오빠 열린 나오세요.
△이리수 매점~ 똑바로 밥 안해요? 맛있다.
△00학번 정훈 오빠 패유 바래요.
-연수기
△기법아! 군대잘가~
-종
△40th 김병근 선배님 정신이 빨리 나서 다시 학교에서 볼 수 있길 바래요.
-KKK
△규현아 너무 보고잡다! 나중에 볼 땐 더 이빠져있길 ^^
-해란
△조철원 군대잘가~ 강으로 불버터라~
-광 패밀리 일동
△동불 철야 잘하세요
-KKK
△윤규아 군대 잘 다녀와, 보고 싶을꺼야...
-동불
△이제 아줌마가 되어 가는구나.
△유리야 사랑해!! 오랫동안 너의 뒤에 내가 있었었다는 걸 잊지마.
-유도빈

은방길

축하합니다

△행정 왕자와 못생긴 시너 백일이 자났지만 축하한다.
-행정 F·1기
△신해아! 대엽아! 700일 축하한다~
-ps) 결혼해라.
-현진이가
△성주야!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언제 나 너의 스마일을 기대할게^^
-누나들이(현주·미라)
△성택과 희정의 1주년을 축하합니다.
△영석아 생일 축하해.
△개방형, 안자해! 생일 축하한다.
-연니들(S4, 홀)
△부럽지이~ 나 결혼한다. 4.8일 영원히 기억에 남도록 많이많이 와서 축하해줘.
-이준마 이마 2단 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시는 법정대 학생회 여러분! 2천 1년 법정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법정대 핫팅!
-法政人
△화려한 4월 5일 수고 많았습니다.
-환장
△효정! 과대생활 하느라 수고 많다. 앞으로 화이팅!!
-99인
△우현아~ 수고가 많다. 앞으로 우리 울

썬미 도올게! 힘내 파이팅!
-MBA 핫팅!
△정희아! 통학한다고 수고가 많다. 많이 힘들고 피곤하지? 그래도 힘내라. 알지? 내 맘!!

열심히합니다

△블래 숨어 있는 룸에는 드디어 전기도 끊기고 말았다. 하지만 아우라 가족들이! 열심히 버텨보자꾸나! 우리는 앞으로 도전할 것이다. 정말 살기 힘들다.
-아우락 전채홍이
△개방형 아가들이! 우리 열심히 해보자.
△술 똑! 담배 똑! 핸드폰 똑! 행자부 시험, 4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탈
△98학번 간호화와 남은 실습 쟁으로 열심히 합시다. 98간호 화이팅!
△조경과 씨름하는 너의 모습이 정말 보기 좋단다. 앞으로 열심히 하고, 국문도 열심히 해라.
△관광 교육론 듣는 학생들~ 우리 모두 열심히 해요!
-^^
△자연대 01학번 준래군~ 많이 힘들겠지만 학교생활 열심히 하시길 바랄게요!
-누나가
△꼭지 넌 분명 잘 해낼 수 있을꺼야. 니가 결심한 거 이룰 수 있도록 꾸준히 열심히 하렴!
-넌 항상 지켜보고 있는 이
△경주캠퍼스 친목카페 '동경사랑회' 화이팅!!
-단군신화

그리고...

△4월 16일 군입대한다. 잘들 있여라. 동국음악회 21기 동기들아~ 사랑한다.
-법정대2 이동주
△원영&맹남 나처럼 행정 열기 커플이 되기를 바란다.
-Out Slider '3'
△재희화신 순진언니, 승철오빠! 계속 행복하세요~♡
△태희 오빠~ 내가 곧 면회 갈게. 기다려~^^ 오빠~ 사랑해!
-이뿐 천사 현주
△용갈아 알아 요즘 더 이빠지더랑~♡
-행정패밀리
△98간호 올해 안으로 애인 꼭 만들기!
△동경사랑회 여러분 하이킹 재밌었어요!
-이재석
△행정견학 화끈하게!
-행정 4학년 괴대백
△아웃사이다! 부활을 넘어 비상으로...
-정신적 지주
△행정회! 이 언니가 피곤한 몸을 주체할 수 없구나. 주말이면 신나게 정모를 하고 있었군. 글구 외로부 친구에게 전화 마니 하거~^^
-너의 친구가
△6월 16일, 우리의 약속을 잊은 건 아니지? 하지만 오늘도 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먹고 또 먹는다.
-너의 방 짝
△미리안아~ 언정이 있다고 벌써 나를 버린거야? 실망이여~
-버림받은 女
△은혜야! 비록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웃사이다(?)가 됐지만 불쌍한 우리 둘이서 잘 살아보자~
-단팃친구가

달하나 건강에

빈터의 진가



김성철 불교문화대 불교학과 교수

서울에서만 살다가 이 곳 경주캠퍼스에 부임한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작년 이맘 때 아직 연구실을 배정 받지 못했던 필자는 강의가 없는 시간을 이용해 버스를 타고 혼자 침성대와 석굴암 등을 돌아본 적이 있다. 그 전에도 몇 번 경주에 와 보긴 했으나 국보급 문화재들의 실재를 확인한 후, 방문의 증거를 남기기 위해 그 앞에서 기념 촬영하는 소위 관광객행위로 그쳤을 뿐이었다. 그런데 작년 봄 빈 시간을 때우기 위해 이루어진 하루 동안의 나들이에서 필자는 경주의 문화재 하나 하나와 그 문화재를 만들어 낸 신라 후손들의 모습들을 찬찬히 살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 때 필자에게는 세 가지 점이 무척 신기하게 느껴졌다.

첫째는 침성대와 석굴암, 감은사 석탑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그 규모가 크다는 점 이었고, 둘째는 버스를 타고 내리는 필자의 발걸음이 다른 사람보다 무척 빠르다는 점 이었으며, 셋째는 경주 시내를 바라볼 때 다른 도시와 달리 시야의 많은 부분을 텅 빈 하늘이 차지한다는 점이었다. 빈터를 가만 봐두길 못하고, 조금씩이 몸에 밴 서울 산(産) 속물기였던 필자에게 '크고', '여유 있고', '비어 있는' 경주의 모습은 잔잔한 충격이었다.

침성대, 오름, 분황사와 같은 문화재는 그 주변이 비어 있어야 그 진가가 드러난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토에서 빈 공간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국립공원이나 문화유적 주변의 빈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각종 관광시설들이 들어선다. 그래야 다수의 국민들이 여가를 즐기며 행복하게 살아가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관광과 오락을 문화와 혼동한다.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말할 때에도 대부분 그 목적은 관광객을 끌어 들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이다.

몇년 전 고속철도의 열풍이 비껴간 경주에, 얼마 전에는 경마장의 광풍이 스치고 지나갔다. 고요했던 고도(古都) 이곳 경주에 앞으로 또 어떤 바람이 휘몰아칠지 알 수가 없다. 설혹 '빠름'의 대명사인 고속철도가 경주를 가로질러 상권이 부흥되고 '빈터'에 경마장을 세워 관광객수가 급증한다고 해도 그 이익의 대부분은 결국 '속 좁고' '발빠른' 외지인들의 몫이 될 것이다. 제주도가 그랬고, 강원도 정선이 그렇듯이.

지 하 철 문 화 탐 방

문화여행, 단돈 600원!

지하철이 달라진다. 단순한 교통수단의 개념을 넘어 대중의 삶 속으로 한 발짝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최근 지하철에 불어오던 대중문화 바람은 이제 본격적으로 지하철을 시민들의 생활 공간 속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6호선을 타면 첨단테크놀로지와 미술의 만남이 빛어낸 환상적인 공간을 만날 수 있다. '달리는 디지털 영상미술관'이라는 주제로 오는 15일까지 운행하는 디지털 문화 열차는 6호선

이번 내리실 곳은 '지하문화공간역'입니다

지하철 하루 이용객 5백만 명, 서울 시민이 약 1천만인 것을 감안하면 서울 시민의 반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셈이다. 출퇴근길 만원 지하철을 타다 보면 어느새 몸과 마음은 지치기 일쑤이고 어서 빨리 집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해지기 마련이지만 이런 이용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곳이 있다. 바로 지하철 전시관이다.

현재 전시관을 운영중인 역은 혜화·광화문·경복궁역 등이다. 특히 3호선 경복궁역 1층 전시관에 가면 말로만 듣던 '자유부인'부터 얼마전 상영된 '쉬리'까지 우리영화 대표작 100선을 선정, 주역의 포스터를 전시하고 있으며 대중상 영화제 역대 수상자 및 수상영화 전시회도 열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매주 주말과 공휴일에는 시대별·테마별 걸작 영화를 무료 상영하기도 한다. 또 광화문역에서는 지난 7일까지 '2기 지하철 완공기념 서울지하철전시회'를 열어 지하철의 종류부터 100% 이용방법까지 지하철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었다.

또한 이 외의 역에서도 이용객을 위한 다양한 문화공간과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6호선 녹사평역은 동형식으로 만들어진 유리지붕과 유리로 장식된 역사 벽면을 이용해 역사를 무료 결혼식장으로 대여중이며, 5호선 화곡역과 까치산·우장산역에서는 지난 4월부터 '무료건강상담코너'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7호선 중화역의 경우는 지난달 대합실 여유공간을 미술전시회와 알뜰시장, 중소기업 홍보전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민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그밖에도 3호선 학여울역은 올 12월경 도시철도의 과거·현재·미래를 담은 지하철 박물관 건립을 예정중이다.

손상민 기자
neo9292@dongguk.edu



열차 1편성(8량)에 각 량마다 테마를 설정해 짧은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또 지난해 8월 여행을 시작, 인기를 끌고 있는 7호선 '달리는 도시철도 문화예술관 : 드림 메트로'는 아이들과 여성을 위한 공간 창출 대안을 제시한다. 비오는 날, 목욕탕, 놀이방 등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제의 공간들이 아기자기하게 펼쳐지며, 5호선 역시 석가탄신일에 맞춘 '봉축열차'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놀랄 일은 이번만이 아니다. 6월 6일까지 도심 속에서 영화를 싣고 달리는 3호선 '씨네트레인 2001'은 각 량마다 멜로영화관, 한국영화역사관 등 내·외부 전체를 서로 다른 주제의 영화작품으로 재구성해 승객들이 마치 영화관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에 빠져들게 만든다.

지하철이 시민의 무미건조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으려 시도한 것은 비단 오늘날만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간의 노력들은 소극적인 자세에 머물렀던 반면 작년부터 여행을 시작한 문화철도는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문화형태를 만들어낸다. 오늘 한 번 발길을 옮겨 직접 문화철도의 이색적인 즐거움을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이수경 기자
papaya@dongguk.edu



지하철, 세계는 지금?

우리 나라 지하철이 공연, 전시가 펼쳐지는 복합 다기능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과 달리 세계의 지하철은 아직 그 첫발을 떼지 못하고 있다.

흔히 지하철의 원조는 프랑스라고 말한다. '메트로'라고 불리는 파리 지하철은 100년의 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명속 거미줄'이다.

바로 20개가 넘는 엄청난 규모의 지하철노선이 지하철 대국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다. 파리 지하철을 타면 파리의 자유로움이 느껴지는 문화를 접할 수 있다. 지하철 내에서 약사들의 흥겨운 연주가 펼쳐지고, 환승구 통로 곳곳은 솔직하고 과감한 광고 포스터들이 장식되어 있다.

가까운 일본 지하철도 마찬가지다. 도쿄지하철은 1927년 개통된 이후 현재 총 12개의 노선이 운행중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국철과 더불어 오렌지, 초록, 은색 빛깔을 띤 민영 지하철이 있고, 속도 차이와 정차 구간에 따라 보통, 급행, 특급으로 나뉜다. 특히 일본의 지하철은 움직이는 도서관이라고 일컫는다. 지하철 내에 마련된 책들이 승객들을 독서삼매경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프랑스와 일본의 지하철 공간은 시민들이 문화공간으로 인식할 정도로 발전하지는 않은 상태다. 이에 관해 서태양(관광경영학) 교수는 "우리나라 지하철문화는 세계인의 관심을 끌어들이 만큼 매력적이다"며 "지하철역 주변의 특성을 살려 테마를 발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말한다.

이제 지하철은 삭막한 도심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는 생활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발맞춰 지하철에 대한 시민의식 또한 '탈 수 밖에 없는' 교통수단이 아닌 '타고 싶은' 문화공간으로 인식하는 날이 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윤미 기자
copy@mail.dongguk.ac.kr

잡자소식

환경음악회, 오는 15일 개막

환경운동연합(의장=윤준석)은 오는 15일 오후 3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제 16회 환경음악회 '환경 가족을 위한 클래식 산책'을 개최한다.

지구의 날 31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음악회는 환경 사랑 기부 음악회로, 공연 수익금은 환경 사랑 실천 활동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금난새가 지휘를 맡고 유로아시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피아니스트 송인호, 마림바 정지혜의 연주로 공연된다. 문의 335-6837

언론개혁 100인 모임 출범

언론계 인사들이 주축이 된 '언론개혁을 위한 100인 모임'(이하 100인 모임)이 지난 6일 공식 출범했다.

이 모임에는 한국기자협회 김영모 회장 등 언론단체 대표를 비롯 참여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와 정연주 한겨레신문 논설주간, 안상운 변호사, 김승수 전북대 교수 등이 동참했다.

100인 모임은 앞으로 언론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기존의 잘못된 언론관행을 타파하고 매체비평 전문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남북 풍물사진전, 10일까지

한국사진작가협회(회장=백현기)는 오는 10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세종갤러리에서 '남북 풍물사진전'을 연다.

남북 작가들이 합동사진교류전으로 갖는 이번 전시는 남북 사진 62점과 북측 작품 50점이 전시되며, 출판 작가는 김관중씨 등 남북 62명과 리춘씨씨 등 북한 17명이다.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의 사계절을 담은 사진들을 전시하며, 통일열원을 되새기는 자리가 될 것이다. 문의 744-8062

통일의 이름, '불타는 소파'

극단 사조(대표=유승봉)는 연극 '불타는 소파'를 무대에 올린다.

남남북녀의 가상결혼을 통해 남북화합의 길을 모색하는 이번 연극은 남남북녀가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각기 살아온 방식과 가치관의 차이를 이겨낸 후 새로운 통일 1세대를 잉태하는 이야기이다.

중견 작가 오태영이 비유적 화법으로 이데올로기와 분단의 아픔을 벗어나, 한 민족의 진정한 평화를 꿈꾸는 남북 화합의 시대를 그려내고 있다.

다음달 3일까지. 7시 30분(월-금)/4시·7시(토)/3시·6시(일). 대학로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문의 761-4046

문화기획



가요 순위 프로그램 풀코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체비평

잡지 편

민족 21

“통일언론, 그 출발에 갈채를”



남북의 거리감을 좁히고자 발간된 통일 언론잡지 '민족 21'.

2000년 6월 13일은 잊지 못할 날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역사적인 남북은 이제까지 굳게 닫혔던 50년의 철벽을 허무는 시작이었고, 그후 여러 단체들의 남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언론인들의 남북 역시 예외일 수 없는 데, 이제 첫 성과물이 그 얼굴을 드러냈다. '민족21'. 창간호를 펴면 이 잡지의 제목이 왜 '민족21'인지 알 수 있다. 같은 동포라는 당위적 인식만 유행했던 기존의 언론과 교육에 종주부를 찍으면서 '민족21'은 한반도 북쪽의 삶에 대해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염두에 두고, 그것을 통해 상호 인정하는 체계를 만들며 공유해야 할 과제를 제시한다. 이러한 작업은 '21세기'에는 기록되어야 할 '민족'의 통일을 예비하는 성격을 강하게 띤다.

잡지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실려있다. 남포 앞바다의 유전 개발을 위해 남과 북의 협조방안을 모색한 경제적 문제에서부터 일제의 조선 강점 불법성에 대해 공동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가 하면, 박재규 전 통일부장관과 강만길 발행인의 대담도 실려있다. 그뿐이 아니다. 6·15 선언 이후 북한의 모습을 조선신보의 기자가 기고했는가 하면, 북의 386 세대에 각인된 김정일 위원장의 이미지를 분석하기도 하고, 북한 문학을 소개하는 문화면도 있다. 한마디로 북한에 관한 다양한 스펙트럼을 볼 수 있는 프리즘 같은 잡지라 할 수 있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많은 기사들이 북한을 직접 취재하면서 작성했다는 점이다. 그만큼 생동감과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어, 가히 통일을 대비하는 잡지라 할 만하다.

그러나 이 잡지를 보면서도 한편으로 착잡했던 것은 남한 보수 언론들의 행태가 아직도 여전하거나 더 기세를 부린다는 점이다. 과거의 친일 행각에 대한 사죄는 커녕 오히려 '민족지'임을 자부하는 신문들이 한국의 오늘을 걱정하는 척 하면서 내뿜는 주장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철저히 보장하려는 입장에서 단 한발짝도 더 나가지 못한 것들이다. 일제에 빌붙고 군부에 빌붙으며 자기의 재산을 부정으로 늘려간 그 신문들은 자기들의 잘못은 어떤 형태로든 당연시하면서 남의 잘못은 눈을 부라리면서 찾아내려 한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다양성의 원칙은 무엇보다 존중되어야 하지만, 지금의 한국 사회는 '다양성을 가장한 획일성'만 유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획일성을 조장하는 보수

언론들의 작태가 너무도 강한 파워를 지니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필자는 언론의 이러한 행태가 쉽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까지 눈치 보면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며, 그런 사고를 가진 이들이 신문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방법은 결코 쉽지 않지만, 구조 속의 개인이 스스로 자각하면서 개혁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몫은 결국 독자에게 달려 있다. 보수 언론의 작태에 놀아나지 않고 통일 언론을 조성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이제 열렸다. '민족21'은 통일을 위한 작지만 소중한 발걸음이다. 강성률 민족예술 편집장

아리랑, 민족혼 실고 한반도 속으로

2001년 지역문화의 해를 맞아 각 지역마다 특색있는 지역문화를 알리느라 여념이 없다. 지역문화가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그 뿌리를 할 수 있는 전통문화의 튼튼한 밑받침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서양문화에 어느새 익숙해진 우리는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많이 잊고 사는 듯 하다. 서양문화에 대한 지나친 호감이나 선호와는 달리 우리 고유문화에 대해서는 무관심 일색인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우리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자 3회에 걸친 기획을 준비했다.

우리 나라 민요 가운데 아리랑은 가장 상징적인 노래다. 우리 나라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나 아리랑이 있고, 누구나 한 곡쯤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리랑이다. 옛날부터 아리랑은 식견 높은 양반들이 즐겨 부르던 노래가 아니라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지어 부르고 여겨 너머로 배워 불렀던 백성들의 노래, 즉 민요(民謠)인 것이다. 이렇게 구전된 아리랑은 일제 강점기인 1926년 나운규(羅雲奎)가 연출하고 주연한 무성영화 '아리랑'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주인공 영진이 아리랑고개를 넘는 영화의 마지막 대목에서 부른 아리랑이 경기 아리랑을 모태로 해 나운규가 새롭게 만든, 지금 우리가 흔히 듣는 아리랑이다. 이 무렵부터 아리랑은 양적·질적인 비약으로 일제하의 삶을 단순히 피동적으로 살지 않고 끊임없이 저항하며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시작했다.

아리랑이 처음 기록된 문헌을 살펴보면 조선시대 후기 천주교 신자였던 이승훈의 '민중유고(蔓川遺稿)'에 있는 '농부사(農夫詞)'의 한 구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啞魯難 啞魯難 於鐵也... (아로롱 아로롱 어허야) 물론 이 말이 지금 불리고 있는 민요 아리랑의 모태라고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아리랑과 비슷한 후렴구가 조선 후기에도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리랑이 불려지기 시작한 보다 구체적인 사실로는 1865년부터 시작된 대원군의 경복궁 중수 때 아리랑이 전국적인 민요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당시 경복궁 중수를 위해 반역을 기리지 않고 부역을 하던 사람들이 원남을 강요받고 부녀자까지 부역에 동원시키라고 하자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던지 "차라리 귀가 먹었으면 좋겠다"고 탄식하며 읊조린 '아이롱(我耳聾)'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아리랑으로 변해 전국적인 민요에 불어 아리랑으로 확산되어 갔다고 한다. 임으로 전해내려 오던 아리랑을 처음으로 서양식 기보법으로 기록한 것은 1896년 당시 선교사로 활동하던 미국인 허버트(Hulbert)에 의해서였다. 허버트

는 'Korea Repository' 라는 잡지에 'Korea Vocal Music' 이란 제목으로 아리랑의 영문 가사를 실고 있다. 이 악보의 끝에 아리랑이 1883년부터 대중적인 애호를 받게 되었으며, 제각각 다른 내용이지만 후렴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해설을 덧붙여 놓았다. 그러나 이 때 불려지던 아리랑은 우리가 지금 흔히 들을 수 있는 아리랑과는 음악적으로 다르다. 우리 나라 민요 체계는 본래 세 종류로 구분되는데 경기도·서도의 경기민요 계통, 경상도·강원도·함경도의 메나리조 계통, 육자배미로 대표되는 호남지방의 남도민요 계통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세 계통의 오음계에 일본의 두 가지 오음계가 일제시대에 유입되어 유행가로 정착,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 친숙한 음악이 된 것이다. 엔카나 뽕짝이나 트로트니 하는 것들 대부분이 다 일본의 오음계를 차용한 유행가 형태다. 1930년대부터 왜색 음계를 차용한 아리랑 노래, 강남 아리랑, 아리랑 술집, 아리랑 아가씨 등 아리랑 아류 가요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알게 모르게 음계까지도 일본 가락의 영향을 받아 왜색화 되었지만, 전통 민요 아리랑은 그 틀에서 절기나 절건 생령력을 이어 왔다.

극복의 소리 지금까지 살펴본 아리랑은 일제 침략에 대한 항쟁가로 불리기도 했고, 소박한 삶을 담은 전원의 노래가 되기도 했다. 또한 자신의 절박한 심정을 표출하는 서정 가요가 되기도 했고, 심지어는 색정을 유발하는 선정 가요로 불려지기도 했다. 아리랑 가사 속에는 이처럼 오랜 세월을 거쳐오면서 수많은 삶과 사랑의 긴 긴 그림자가 각인되어 있어, 단순한 민요의 틀에서 벗어나 문화와 역사까지도 담고 있다. 아리랑을 부르는 사람들은 슬픔과 기쁨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울음이 맺힌 응어리를 풀고 또 풀었다. 아리랑을 동반자로 한 이같은 삶이 사람들에게 더더욱 아픔을 받아왔고 한국인을 포상하는 대표적인 민요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따라서 한국인이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아리랑을 부를 수가 있으며, 이를 통해 무엇인지 거리낌없이 표출해 절망에서 희망의 세계로 넘어가는 삶의 가치를 구하고자 했다. 아리랑은 오늘도 우리 가슴 속에 살아 숨쉬며 내일을 가꾸고 있다. 문화부 fresh@dongguk.edu

아리랑 변천사

아리랑이 처음 기록된 문헌을 살펴보면 조선시대 후기 천주교 신자였던 이승훈의 '민중유고(蔓川遺稿)'에 있는 '농부사(農夫詞)'의 한 구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분단의 고개에서 본 북한 아리랑

지난해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만경대 학생소년공전에서의 축하 공연과 두 차례의 만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민요가 아리랑이다. 아리랑은 북한에서도 전통민요로 널리 불려지고 있는데, 대략 20여종으로 해주 아리랑, 어랑타령, 평산도관 큰개 아리랑 등 대부분 전통을 바탕으로 한 아리랑이다. 경상도 아리랑, 영천 아리랑 등 남쪽에서도 잊혀진 아리랑이 널리 불리고 있는가 하면 강원도 아리랑도 유명세를 타고 있다. 밀양 아리랑, 경상도 아리랑 등은 음악 조끼교육을 위한 '어린이 피아노교육본'과 '어린이 가야금 배우기' 등의 교본에도 실려 있어 북한 어린이들까지 연주하고 부를 줄 아는 노래가 되었다. 북한의 대표적인 아리랑 소리꾼으로는 김관보와 강영경을 꼽을 수 있다. 김관보는 아리랑을 운치 있고 기교있게 부른다는 80여종의 민족음악교육가로 평가받으며, 강영경은 영천 아리랑, 긴 아리랑 등 많은 아리랑을 음반으로 남기고 피바다가 극단에서 민족성과 강사로 후학을 양성했다. 그 후 리경숙, 박복희, 전해영 등의 민요가수들이 아리랑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아리랑을 비롯한 민요를 중요시해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왔다. 북한 전역의 민요 수집을 1960년대에 끝내고 구전민요집(1965)과 조선민요집(1969)을 펴낸 것이다. 이 외에도 평양음악무용대학 민족음악연구사단 차승진(65)과 음악무용연구사 한취국(59) 등이 아리랑을 비롯한 민족음악의 발굴과 정리에 힘을 쏟고 있다. 북한에서 아리랑은 "예술은 영웅적 투쟁 모습을 그려야 한다"는 기조에 따라 이념적인 색채를 강조해 '피바다'식 혁명 가극인 '밀림아 이야기하라'에 등장하기도 한다. '밀림아 이야기하라'는 항일투쟁시기인 1930년대 중엽을 배경으로 일본수비대장에 의해 마을 구

장으로 임명된 최병훈이 일제 토벌대를 흥산골로 유인, '아리랑'을 신호로 매복해 있던 조선인민혁명군이 크게 무찌른다는 내용이다. 이는 '아리랑'이 단순히 노래를 넘어서 암호로도 쓰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아리랑 창법은 우리 정서에 익숙하면서도 좀 낯설게 들리고 영무새 소리 같은 이질적인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북한의 아리랑이 전통음악에 뿌리를 두는 한편 그들만의 창법에 맞춰 변주한 결과일 것이다. 북한의 성악 발성은 전통 민요 등을 부르는 민성과 서양음악식 발성인 양성으로 나뉘는데 연인배우와 꼬마들의 맑고 나긋나긋하면서도 간지럽게 느껴지는 목소리는 북한의 전통민요인 서도소리 창법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발전시킨 민성 창법으로 불렸기 때문이다. 이를 북한에서는 '주체발성'이라고도 한다. 북한 아리랑의 소리꼴과 맛깔은 우리와는 다르다. 그러나 그것은 서로 다른 음악권에서 이념과 내면의 이데올로기가 낳은 차이일지도 모른다. 사실 분단의 골 깊은 상처에 비해 아리랑만큼 민족을 연결하는 끈끈한 고리는 없을 것이다. 1989년 북경 아시안게임 단일 팀 구성을 위한 남북체육회담에서 남북 단일팀의 단가로 아리랑을 택하면서 아리랑은 분단을 넘어서 남북이 어우러져 부를 통일의 노래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보다 앞서 1985년 남북 이산가족 교환 방문 때 평양에 간 서울예술단은 "청천 하늘에 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에 수심도 많다"는 아리랑 가사를 "어두운 세월은 지나가고 희망찬 새날이 밝아온다"로 고쳐 부르며 '희망찬 새날'을 꿈꾸기도 했다. 이렇듯 아리랑은 남과 북에 공통으로 살아 있으며 남과 북을 이어주는 촉매구실을 특목하고 있다. **진용선** 정선아리랑연구소장



고리에 고리를 무는 어원 따라잡기

1930년대부터 미비하게나마 연구되기 시작한 아리랑의 뜻을 찾기 위해 최근까지 수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접근을 시도해왔다. 그러나 고어(古語)에 의한 유추방법, 전설에 의한 유추 방법, 역사서를 근거로 한 유추 방법 등 어느 것 하나 실득력 있는 정설(定說)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김지연(金志淵)의 알영(阿娘) 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나타난 전설을 근거로 한 학설로 알영정(阿英井)과 알영천(阿英川)에서 유래된 박혁거세(朴赫居世)의 미(妃) '알영'의 턱을 찬미하는 것으로, 이 말이 후에 아리랑으로 변했다고 한다. **▲김재수(金載壽)의 아랑(阿娘) 설** 밀양 아리랑의 배경이 되는 전설의 주인공 '아랑'이 아리랑으로 변했다고 한다. **▲김덕장(金德長)의 아이랑(我難娘) 설** 대원군이 경복궁을 중수할 무렵(1865~1872) 전국에서 선발된 부역꾼들이 고향을 떠난 외로움과 사랑하는 아내, 연인과 떨어져 있음을 한탄하면서 "나는 너를 이별하네"라고 부른 아이랑(我難娘)에서 유추하고 있다. **▲강대호(姜大鎬)의 아난리(我難離) 설** 진시황제가 만리장성을 쌓을 때 부역민들이 쉬지도 못하고 혹사당하자 자탄조로 '어허 아라고(魚於河 我多苦)'라고 했다. 대원군의 경복궁 중건 시기에도 부역민들이 이를 모방해 "나는 떠나고 싶어도 못떠난다"는 뜻인 '어허 아라고(魚於河 我多苦)'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 '아난이'가 후에 '아라리'로 되었다고 한다. **▲권상노(權相老)의 아이롱(啞而聾) 설** 한일 합방 후 '노골적으로 살해'되는 일제의 착취에 대해 감히 맞서지 말고 못본 척 하라는 '아이롱'이 아리랑으로 되었다는 설이다.

▲일본인 학자의 아이일영(俄美日英) 설 구한말에 널리 유행되었던 '일본아 일어나라 미국은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말라...'는 풍요(風謠)의 내용과 뜻이 통하는 설로 아이일영(俄美日英)을 경계해야 한다는 데서 유래했다는 설이다. **▲이능화(李能和)의 아랑위(兒郎偉) 설** 옛날부터 가족을 신축할 때 '상랑문(上郎文)'에 '아랑위(兒郎偉)'란 글을 걸게 쓰는데서 연유했다고 한다. 이상운(李尙雲)의 설을 이능화가 소개한 것이다. **▲양주동(梁柱東)의 아리령 설** '아리랑을 고유어와 한자의 혼합적 해석을 통해 규명한 설로, '평명(平)을 찾아'에서 연유한 고개를 '아리령(嶺)'이라고 밝히고 아리·아리·오리·우리에 관한 지명을 전국적으로 분포된 고개로, 대동여지도에서 찾아 문헌적으로 고증하고 있다. **▲이병도(李丙燾)의 낙랑(樂娘) 설** 역사적 사실에 의한 유추설로 낙랑(樂娘)에서 남하하는 교통로의 관문인 자비령(慈悲嶺)의 이름을 '아리'로 보고 있다. 역사적 변동기에 유민들이 남하하면서 남한 고개를 낙랑과 진번의 경계선인 자비령으로 생각해 '낙랑-자비령-아리령' 관계를 정립시킨 것이다. **▲최재익(崔載億)의 알랑(卵郎,卵娘) 설** 고어에 의한 유추적인 방법으로 동남(童男), 동녀(童女)의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밖에도 여진어의 아린(阿林)에서 유래되었다는 설, '아리'고 '쓰리다'에서 연유되었다는 설, 인도의 신(神)인 '아리랑 쓰리랑' 신에서 나왔다는 설 등 무려 40여 가지 설이 있다. 문화부 fresh@dongguk.edu

메아리 병속에 담긴 목소리

▲잡지사의 자료수집가 테레사, 이른 아침 해변을 거닐다 '병속에 담긴 편지'를 우연히 발견한다. 편지 속에는 죽은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호소하는 한 남자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편지에 담긴 사연은 테레사의 마음을 두드리지만 실체가 없는 사람이 이루어지 기관 그리 쉽지 않다. '병속 편지'에 동화 된 여자와 현실로 타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남자. '병속에 담긴 편지'만이 바

다를 떠돌 뿐이다. ▲최근 시위현장에 화염병이 다시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화염병시위가 국제신인도를 떨어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강력하게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화염병 시위자에 대해 공적채용 등에서 취업제한을 두고 화염병 행사처벌자의 명단을 일반에 공개한다고 한다. 또한 대학생의 경우 그 명단을 해당 대학에 통보할 예정이라는 소식이다.

올해 들어 화염병 시위로 19명이 구속되고 39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 대다수가 대우자동차 사태와 관련된 사람들이다. 봉천동 재개발 반대 집회나 정리하고 분쇄 결의대회 등 막다른 버려질 만한 난한 사람들이 자포자기 심정으로 화염병을 던진다. 세상을 향한 절박한 심정을 병속에 담아 표현한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과격해지는 시위양상에 따른 정부의

응답은 폭력진압 뿐, 이러한 정부의 발상은 인권침해이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와 민중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의정을 토해내며 대치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화염병에 대한 논란은 단지 작은 에피소드일 뿐이다. ▲'병속에 담긴 편지'는 테레사의 마음을 움직였지만 그 원인을 제공한 남자는 현실을 외면하는 상황, 바로 '화염병'만을

문제삼아 그 원인을 간과하는 정부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화염병 사용이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 하지만 화염병을 무기로 삼을 수밖에 없는 이들, 더 이상 내몰릴 곳이 없어 움켜쥔 주먹에 정부는 어찌 차가운 법규만을 내세우는지, 서로가 손을 맞잡을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김윤미 사회부장 kiza41@dongguk.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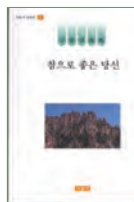
책소식

생활 속의 불교



본교 재직중인 권기중 교수가 말하는 생활 속의 불교 이야기.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불교의 입장에서 조명하고, 곳곳에서 느낄 수 있는 불교의 자취를 풀어낸다. 대승불교의 참된 의미와 세계 속 한국불교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함께 마련한다. 권기중 지음/ 숲/ 정가 9천800원.

참으로 좋은 당선



본교 정치학과 출신의 저자가 93년 발표한 '역새품 하얀머리'에 이어 새로이 펴낸 두 번째 시집. 저자가 60평생을 살아 오면서 느낀 사랑과 그리움, 이별, 자연에 관한 이야기를 130여 편의 시속에서 풀어낸다. 김동필 지음/ 고음사/ 정가 5천원.

괄허집



18세기 한국 불교문학의 주역이었던 괄허선사의 시와 절구 등을 총망라해 번역하여 엮은 문집. 어렵고 딱딱하게만 여겨던 한문 불교문학을 젊은 세대에 맞게 풀어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괄허선사 유고/ 최병석·여한경 역/ 불광출판부/ 정가 126천원.

살고 있는 순간의 어두움



울산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저자가 일상에서 접한 사건들과 논쟁거리에 관해 느낀 점을 철학적으로 풀어 엮었다. 서태지 신드롬, 지역감정 등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일들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접할 수 있다. 김진 지음/ 세종출판사/ 정가 9천원.

콘서트소식

고(故)이수현 추모콘서트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는 일본인 취객을 구하려다 전동차에 치어 사망한 고 이수현씨의 추모 콘서트를 연다. 이번 콘서트는 고 이수현씨의 살신성인을 기리는 자리로 치러질 예정이며 윤도현밴드, 김경호, 강산에, 이은미 등의 가수가 출연해 고인의 명복을 기린다. 오는 13일, 7시, 고려대학교 노천극장에서. 무료입장. 문의 545-8747

꽃다지 콘서트



꽃다지의 2001 봄 콘서트 '반격(反擊)'이 무대를 달군다. 이번 콘서트는 꽃다지의 새로운 싱글 음반 '반격' 발매와 때를 같이해 공연되며, 폴란드의 '가자! 노동해방', 프랑스의 '오월의 노래' 등 세

계의 민중가요도 접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된다. 오는 13일(금), 8시/14일(토), 4시·7시. 종로5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문의 2635-3580

공연소식

몽환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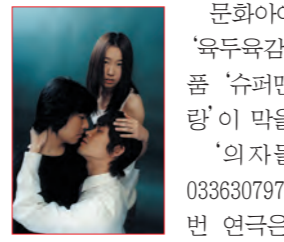
극단 동승 무대의 창작극 '몽환곡'이 관객을 맞는다. 이번 연극은 힘겨운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꿈속의 환상이라 치부하고 싶어하는 주인공을 통해 현실의 삶을 되돌아보게 한다. 우리 정서와 문화에 맞는 창작극을 무대에 올리는 만큼 함께 어우러지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15일까지. 7시30분(화·목)/4시·7시(금·일·공휴일)/월 휴. 대학로 강강술래극장에서. 문의 914-7040

세자매



극단 백수광부가 안톤체홉 원작의 '세자매'를 무대에 올린다. 고향 모스크바로 돌아갈 희망을 품고 사는 세자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상을 통해 인간 존재의 의미와 본질에 대한 답을 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번 공연은 '세자매' 초연 100주년 기념으로 치러져 더욱 의미깊다. 오는 22일까지. 7시30분(화·목)/4시30분·7시30분(금·토)/3시·6시(일·공휴일)/월 휴. 대학로 연우소극장에서. 문의 764-8760

슈퍼맨과 타잔의 사랑



문화이콘이 기획한 '육두육감'의 3번째 작품 '슈퍼맨과 타잔의 사랑'이 막을 올린다. '의자들', '바코드 0336307979'에 이은 이번 연극은 탄광에 갇힌 '슈퍼맨'과 '타잔'이라는 두 광부의 모습을 통해 절박한 상황에 있지만 희망을 잃지 않는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을 그린다. 오는 12일부터 22일까지. 7시30분(화·금)/4시30분·7시30분(토·일·공휴일)/월 휴. 대학로 연극실현실 혜화동1번지에서. 문의 762-0810

베니스의 상인



서울시극단이 셰익스피어 원작 '베니스의 상인'을 공연한다. 이 작품을 통해 인간사회에서 사랑, 신의, 자비가 지니는 의미와 역할을 재조명하고 제도·인도적 차원의 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2일과 23일은 전석 5천원에 관람할 수 있으며, 특히 23일은 당일 생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한 선착순 100명에게 무료관람 기회를 제공한다. 오는 12일부터 29일까지. 7시30분(월·목)/3시·7시30분(금·토)/3시(일).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에서. 문의 399-1647

세븐-소시미의 일곱가지 죄악



극단 청람이 창단공연작 '세븐'을 무대에 올린다. 브레히트의 풍자와 쿠르트 바일의 아리아를 결합해 독특한 형식으로 재구성한 이번 공연은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일곱가지 죄악을 새롭게 해석한다. 게으름, 허영, 분노, 탐식, 색욕, 탐욕, 시기를 음악과 안무로 표현한 독특한 자리가 될 것이다. 오는 29일까지. 7시30분(화·금)/4시·7시(토·일·공휴일)/월 휴. 대학로 열린극장에서. 문의 765-8160

인형극 흥길동전



서울 인형극회가 '인형극 흥길동전'을 선보인다. 고대 소설에 나타난 관리층의 비리와 이상국가를 통해 실현하려던 빈민들의 꿈을 가족공연에 맞춰 극화했다. 봉인형 30여 개가 동원되는 대작으로 국제무대에도 선보인바 있다. 인형극이 어린이들만의 유희라는 고정관념을 깨줄 작품으로 기대된다. 오는 29까지. 11시·1시·3시/월 휴. 엑스포공원 화랑극장에서. 입장료-현매 3천원, 단체 및 할인권 2천원.

야외상설 국악공연

신라국악예술단이 민족 고유의 춤과 가락을 간단간한 영어, 일어 통역과 함께 무료로 선보인다.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지난해 공연예술 5대 관광상품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경주지역의 대표적 국악 예술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공연을 통해 전통 가락의 흥취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Table with 2 columns: 장소, 시간, 국악공연이. Details about outdoor Korean music performances.

행사소식

달빛 시연회



경주 테마관광업체 '신라사람들'이 달빛 시연회를 벌인다. 안압지에서 분황사로 자리를 옮겨 가며 유적지 해설과 다도화, 작은 음악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인다. 문화유적, 차와 음악이 함께 하는 이번 달빛 시연회는 야간여행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관광상품으로 신선한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오늘(9일) 오후 5시30분. 안압지(모임), 분황사에서.

동아리 탐방 - 대학생연합 광고동아리 'ONAD'

젊음과 열정으로 완성해가는 15초 마술

광고공모전 참여와 꾸준한 스튜디오 아이디어 충전해

15초 동안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100미터 달리기, 맥주500cc 한병에 마시기? 여기 특목 튀는 아이디어로 '15초의 크리에이티브 마술' 향연을 벌이는 서울·경인지역 대학생연합 광고동아리 'ONAD' 회원들이 있다. ONAD는 지난 95년 본교에 신설된 광고학과와 그 역사를 같이한다. 본교 광고학과 1기생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빛샘'과 지난 98년 또다른 광고 소모임인 'IF COMM.'가 결합, 연합동아리 ONAD로 거듭나게 됐다.



스튜디오에 열중하고 있는 'ONAD' 회원들.

그러나 ONAD가 연합동아리로 자리를 잡아갈수록 ONAD내에 고민거리가 생기고 있다. 지난해 ONAD 회장을 맡았던 오승준(본교 경영4)군은 "연합동아리이다 보니 반듯하게 마련된 동아리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정적으로도 마땅히 의지할 곳이 없어 동아리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한다.

ONAD는 지난 95년 본교에 신설된 광고학과와 그 역사를 같이한다. 본교 광고학과 1기생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빛샘'과 지난 98년 또다른 광고 소모임인 'IF COMM.'가 결합, 연합동아리 ONAD로 거듭나게 됐다.

ONAD의 원동력은 회원들 간의 끈끈한 결속력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교를 비롯해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 서울·경인 지역 10여개 대학생들이 on·off-line 상의 꾸준한 모임을 통해 친목을 다져가고 있으며, 특별 스테디를 통해 광고에 관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나가고 있다.

지난달 31일로 7기 회원을 맞아 계속해서 '크리에이티브'의 가치와 '비주얼'의 앞을 생생, 광고나무를 키워가는 ONAD. 이들의 성장을 멈출 수 없는 것은 젊음과 낭만 그리고 광고를 향한 열정이 있기 때문이다. ONAD가 만들어 가는 15초가 최고의 광고로 거듭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모습 때문이 아닐까.

표은영 기자 piks20@dongguk.edu

자연거 산책길



봄이 무르익어 가는 4월이다. 햇빛이 만개한 이 시기에 한번은 해복직한 일이 바로 친구들과 함께 따사로운 햇살을 등지고 하이킹을 떠나 보는 것이다. 캠퍼스의 낭만 가운데 하나로 대변되는 하이킹은 무턱대고 덤비기에 앞서 예상시간에 맞춘 코스선택과 자연거 대역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경주는 도시 곳곳에 자연거 전용 도로가 있어 여러 가지 하이킹 코스가 있지만 그 가운데 비교적 쉽고 특징있는 4가지 코스가 눈에 띈다.

- ▶ 김유신묘: △터미널 출발 △김유신장군묘 △터미널 대략 1시간 정도 소요되며 학교에서 출발할 경우 30분이 추가된다. 무료한 공간공간을 즐겁게 활용할 수 있는 가벼운 코스이다.
▶ 보문코스: △보문입구 △한화/하일라랜드 △육부촌 △경주월드 △분수전망대 △보문입구 대략 2시간 정도 소요되며 터미널에서 출발하면 8시간의 하루일정 코스가 되기도 한다. 보문호를 중심으로 그 주위를 한차례 선회하는데, 경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이킹코스라 알려져 있다. 또한 놀이시설이 인접해 있어 더욱 사랑 받는 코스이다.
▶ 천마총 코스: △터미널 △천마총 △첨성대 △안압지 △박물관 △오릉 △계림 △첨성대 대략 2시간이 소요된다. 짧은 시간 내에 경주를 대표하는 유적지를 둘러볼 수 있는 코스이다.
▶ 통일전 코스: △터미널 △천마총 △첨성대 △안압지 △박물관 △선덕대왕릉 △신문왕릉 △통일전 △화랑교육원 △선덕대왕릉 △박물관 △오릉 △계림 △첨성대 대략 4시간 30분에서 5시간이 소요된다. 거의 자전거 전용도로로 펼쳐져 있어 초보자도 즐겁게 달릴 수 있으며 시내 관광명소 이모저모를 파악할 수 있다.

Advertisement for '손짓으로 나누는 사랑 II' (Love Shared by Gestures II) featuring illustrations of children and text about sharing and kindness.

동구관 학생식당 차림표

Table listing menu items and prices for Dongguk University Student Cafeteria.

상록원 학생·교직원식당 차림표

Table listing menu items and prices for Sangnokwon Student and Faculty Cafeteria.

독자광고



독자광고는 함께 일할 사람을 모집하거나 하숙집 구함, 야학교사 모집, 각 동아리·학생회 소모임 등에서 회원들을 모집하는 등 분야에 제한없이 순수한 독자들의 광고로 이루어집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Advertisement for '4월 10일 5시 만해광장에서 출/범/함/니/다' (April 10th 5pm at Manhae Plaza) by the 33rd Student Council.

Advertisement for '4월 강호유람 영화상영회' (April Gyeongho-yuam Movie Screening Event) with details for three screenings.

Advertisement for '여학생실 홈페이지가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Girls' Dormitory Homepage Relaunch) with a list of services and contact info.

경주캠 학생회관 식당 차림표

Table listing menu items and prices for Gyeongju Campus Student Union Dining Hall.

Advertisement for '찾아가세요' (Come Find Us) for the Student Union, mentioning a meeting with the president.